

서울캠 총학 해오름식 지난 31일 열려

본관진입 요구안 전달... 일부 기자재 불상앞으로 꺼내

제 32대 서울캠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학과4) 해오름식이 지난달 31일 오후 25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도서관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해오름식에서는 등록금 납부거부 결의 발언과 출범선언문 낭독에 이어 본관으로 진입, 기획예산처의 기자재를 불상앞으로 꺼내는 등 학교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학생들은 현 시기 학내 이슈로 대두중인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날까지 학교당국은 지난 달 16일 총학생회가 전달한 요구안에 대

한 답변을 하지 않았었다.

이승복 총학생회장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등록금 인상과 관련,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협의를 가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학교당국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납부거부를 결의한 이난희(생명자원과학 2)양은 "등록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학사제적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의하게 됐다"며 "납부거부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발식을 마친 후 학생들은

본관으로 진입, 기획예산처 기자재를 불상앞으로 꺼낸 후 요구안을 다시 전달했다. 요구한 주 내용은 △1차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줄 것 △등록금 납부 거부자들에게 대한 제적 등 피해가 없을 것 △등록금 동결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이다.

요구안을 전달한 후 학생들은 본관을 빠져 나와 불상 앞에 모여 정리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기자재를 원상복구하려는 교직원들과 약간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학교측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중이었음



지난 30일 만해광장에서 서울캠 총학생회 해오름식 전야제가 열렸다. 2부순서로 진행된 '새내기 뽀내기 한마당'에 참가한 한 새내기가 '등록금 동결'을 랩과 댄스음악에 맞춰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임의로 가져가는 행동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31일 현재 서울캠의 경우 91%의 학생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현중 기자 roket123@cakra.dongguk.ac.kr

사진/김현중 기자

지면안내

- ☞ **항석영씨 인터뷰** 5면
- ☞ **무권자 권리 찾기 운동** 4면
- ☞ **정보사회 담론** 6·7면
- ☞ **녹두서점과 메모판** 9면
- ☞ **패러디** 11면



말과 구업(口業)

전 해 주 (불교문화대 불교학)

불교 수행자가 지나야 할 계율 덕목중에 그것을 범하면 가장 나쁜 과보가 발생하는 바라 대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망어죄이다. 망어(妄語)란 거짓말이다. 거짓말 중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인 대망어는 깨닫지 못하였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공부를 좀 더 해보니 그전에 깨달았다고 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이었음을 안 경우, 그전에 깨달았다고 한 말은 거짓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망어죄가 아니라 어리석은 죄가 된다.

우리가 하는 일체 모든 선악의 행위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三業)에 다 포함된다.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든 간에 이 삼업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는 없다. 이를 다시 나누어 열가지 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데, 이때 말로 하는 행위인 구업(口業)에 4가지나 설정하고 있다. 나쁜 말로는 거짓말, 욕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절만 번드러한 말 등이다.

말은 가져다 사용하는 자의 것이다. 이러한 말에 의해서 자신과 남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주위를 밝고 복되게도 한다. 또 윤회를 계속하기도 하고 해탈하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이의 말에 마음이 잘 흔들리기도 한다. 칭찬하는 말, 욕하는 말 등에 의하여 마음이 동요되어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남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다른 이의 말에 잘 흔들릴 때는 자신도 남도 더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 주위에서 들려주는 칭찬하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 따위에 넘어가지 말고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말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 말은 허공을 채우고도 남을 만 할 것이다. 화엄경의 말씀처럼 바르게 배운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여야 할 것이 절실한 때이다.

일성스님 불종병 건립 기금으로 2천만원 기탁



대전시 중구 석교동의 금강사 주지 일성(속명 전정숙·69) 스님은 지난 71년 만원버스가 청평호로 굴러떨어져 77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를 당했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후, 매년 기일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어왔다. 스님은 "미시령에서 숨진 학생들의 영혼이 깃든 동국대에서 불교종합병원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의 영혼을 달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임교수 연구비 3백만원씩 지급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학)는 2000학년도 1학기 신임 교수 10명에게 연구비로 3백만원씩 지급했다.

이는 연구열의를 고무시키기 위한 것으로 △김애주(영어영문학) △임준태(경찰행정학) △이호규(신문방송학) △안성만(정보관리학) △이지호(토목환경공학) △김홍일(건축공학) △이재섭(건축공학) △임민중(정보통신공학) △이동훈(연극학) △문원립(영화영상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았다.

기관업적평가·지원제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

기관별 자율적 역량강화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

지난 98년 교육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학교조정이 확산되면서, 본교 역시 LG경제연구원 경영진단팀에서 제안한 주요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본교의 경우, 경영진단팀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팀형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재배치 △행정업무 효율화 △기관업적 평가·지원제도 △조직원인사 평가제도 △교직원 급여체계의 재설계 등의 5개 중점 항목 중 지난해 시행한 '팀형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재배치' 등에 이어 '기관업적평가·지원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인사처 조원생 심사팀장은 "기관업적평가는 교육부의 선별적인 지원과 능력주의 원칙을 도입해야만 하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함은 물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교직원들의 다양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

행하게 되었다"며 "각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제시한 업무계획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구성원들이 하나된 목표를 지향할 수 있고 기관별로 자율적인 역량을 육성,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으로 기관업적 평가 활동을 하게 될 기관평가위원회와 실무평가단이 조직되었다. 기관평가위원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실무평가단은 기획인사처장을 단장으로 한 해당 분야 전문 교수와 외부 전문가,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참여한다. 평가조직의 구성원들은 각 기관에 배정된 고유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는 중점추진과제와 일상추진과제로 나누어 실시한다.

김은선 기자 eunsun@cakra.dongguk.ac.kr

경주캠 총학선거 다시 무산

후보자측 이의 제기... 선거과정 문제점 지적

후보자 자격 심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던 경주캠 총학선거 투표자 과반수 미달로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달 24일 서울캠 부재자 투표에 이어 28·29일 양일간 경주캠에서 치러진 투표결과 총 유권자 8천942명 가운데 4천 283명이 참여해 47.89%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총학생회 후보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강훈·경영4 이하 중선위)에 무산된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통해 △신입생과 복학생의 학생증

미발급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며 △학생회 간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은 학칙위반 △일부 학생회장이 일반 학생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투표를 행사하지 말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관광대(회장=이교형·관경4)와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최현수·법4)를 투표 인원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선위는 당일 회의를 소집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던 신 분증에 대한 문제는 가결하였고, 학생회 간부의 선거 개입 건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시기와 선거일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가결하였다.

또한 선거권 박탈의혹에 대해서는 관광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는 등록여부를 무시한 채 재학생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 총학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본사사령

- ◆ 임수승기자
 - △ 김혜진 (문과대 1)
 - △ 이성희 (문과대 1)
 - △ 이수경 (문과대 1)
 - △ 김도영 (사회과학대 1)
 - △ 김현정 (사회과학대 1)
 - △ 손상민 (사회과학대 1)
 - △ 임태규 (사회과학대 1)
 - △ 우정현 (사회과학대 1)
 - △ 유해영 (사회과학대 1)
 - △ 김남정 (인문과학대 1)
 - △ 윤지영 (인문과학대 1)
 - △ 형진우 (인문과학대 1)
 - △ 김은영 (법정대 1)
- 이상 4월 3일자

미시령사고 사망자 49재

내일(4일) 오전 10시 정각원에서

지난 2월 17일 '2000년 새내기 새로배움터'에 가다 미시령에서 숨진 7명 학생들의 49재가 내일(4일) 오전 10시 정각원(원장=이법산·신학)에서 진행된다.

고인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의식으로 진행되는 49재는 △명종 △천수심경 △불공 △반야심경 △오곡원 큰 스님의 법

어 △천도법요 △장엄업불 △봉송 순으로 진행되며 유가족을 비롯한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안중철 법사는 "안타깝게 고인이 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기위한 행사인 만큼 성의를 다해 정성으로 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사랑 캠페인

교가를 부르는 동국인이 됩시다

"동국야! 너, 우리학교 교가 알고 있니?"

"창창한 남산 기슭~우유훈/ 우리동대는 우유훈/ 드넓은 임전무뒤 보람에 산다~! 뽕뽕 이거 아냐?"

이건 동대응원가임

校歌

이은실 작사
김동진 작곡

Maestoso 3/4박자

거룩한 남산의 언덕위-에 한글이 눈부신 동국의 빛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우리의 이름- 밝히노니

우 리 보 라 권리의동산 탁문리 성-좌 높이들었다

가 승 마 다 눈부른이심 오 직 의기애한 겸손모습

이 면 세 새 세기를 창조하라 리 거를 위해 인류를

위 해 이 땅에 세 역사를 창조-하리라

동대신문사

새터 감사로 학생기구 징계받아

총학 사고후 대책 긍정적 평가... 생자대 60만원 예산 삭감

2000학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부정기 감사 결과 생명자원과학대 경영대 문과대 총학생회 사법대가 예산징지 2주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총 6개 단과대와 3개의 학생자치기구에 징계가 내려졌다.

32대 총대의원회(의장=채진석·경제4)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총 8개 단과대 4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를 △예산 △조직 △사업 3개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감사결과를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총학 집행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고민이 부족한 듯 하다"고 말했지만 "새터사고 후의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 4주와 60만원 예산삭감 조치를 받은 생자대는 "사업 이외의 일로 예산이 지출되었고 가예산 신청내역과 실제로 지출된 내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학부

<표>

징계내용	단위	시행세칙 및 징계사유
주의	동아리연합회 이과대 야간강좌총학생회	검사자료가 미제출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
경고	총학생회	23조 1항, 3항 ~ 예산지출에서 오차가 발견되거나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었을 경우
	공과대	23조 1항, 4항 ~ 사업의 집행이 회칙에 어긋났을 경우
예산징지 2주	총여학생회	23조 1항, 2항 ~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불응 또는 불참하였을 경우, 3항
	경상대학	23조 1항 2차례 적용, 3항
	사법대학	23조 1항, 2항, 6항 ~ 집행부서장들이 올바르게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징지 4주	문과대	23조 1항, 2항, 3항, 6항
예산징지 4주 예산삭감 60만원	생명자원과학대	23조 1항, 2항, 3항, 4항 적용과 6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해 그만큼 상반기 예산에서 삭제

미시령 사고 부상자 문제 대책회의 가져

학부모측, 부상학생의 실질적 보상방안 요구



지난달 28일 교무위원회실에서 학부모와 미시령 사고 부상자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달 28일 미시령 사고 부상자 보상문제와 관련해 학교와 부상자 학부모 간에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부상자 보상대책

학부모협의회(이하 학부모협의회)가 학교측에 요구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달 12일 학부모협의회는 IG

화재보험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요구안을 통해 △보험회사는 부상자 부모와 사전에 보상문제를 논의한 후 지급할 것 △경상자는 학교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할 것 △중환자는 카세트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수업 듣게 하거나 교수들이 직접 병실방문수업을 해줄 것 △시험은 레포트로 대체할 것 △부상자 전원에겐 졸업할때까지 등록금을 면제할 것 △간병비를 지불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학교는 대체적으로 요구를 수용한 답변을 작성해 16일 부상자 보상대책 학부모협의회에 통보했으나 학부모측이 이에 반발하여 왔다.

이날 회의는 홍치유(물리학) 부총장, 선상규 학생복지실장, 유철근 학부모협의 회장을 비롯한 부상자 학부모, 이승복(반도체과학 4)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했다. 요구안과 관련해 학부모 협의회 대표는 "요구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하다"며 "사무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선상규 학생복지실장은 "학교측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요구안은 무리"라며 "학교도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보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험회사"라고 답했다.

홍치유 부총장은 "학교에 보상문제를 일임할 경우 학교가 LG화재보험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며 "학사문제 등도 양측의 입장이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협의회는 "학교측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요구안을 고쳐 다시 학교측과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4월초에 학부모대표와 만나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4·19 등산대회 신청 접수

단과대학 특별상 1백만원 상금

제31회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가 오는 12일 북한산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4·19혁명 4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수유리에 위치한 4·19국립묘지에 집결해 △백련사 매표소 △대동문 △보국문 △중성문 △대서문 △북한산성매표소 △북한산성 매표소 주차장 순의 코스로 등반한다. 이어 주차장에서는 시상식과 폐회식이 진행된다.

동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4인 1조팀 △지도교수 2인 이상과 학생 5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학과 단체팀 △3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동아리 단체팀 △교직원 단체팀으로 구성할 수 있고 각 팀별로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4·19 행운상'을 마련해 금강산 여행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엔 신설된 단과대학 특별상은 단과대학 소속 교수가 모두 참가할 경우 특별상금 1백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학생복지실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학과 단체팀은 각 단과대학 교과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실장=선상규)의 한 관계자는 "4·19혁명 40주년이니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선배들의 4·19 민주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무라 교수 불교서적 기증

다무라엔츠 일본 구주대학 명예교수가 지난달 23일 본교 중앙 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에 1만3천4백54권의 책을 기증했다.

다무라 교수가 기증한 도서는 "일본 불교가 한국에서 전래됐다"는 사실을 연구해

온 불교 관련 서적이며, 다무라문고(가칭)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중앙도서관 일반 열람실에서는 나무의자 2천3백개를 하이팩 의자로 전면 교체중이다.

총학 '등록금납부 거부운동' 진행

제적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과학4)는 지난 달 28일 정보문화관에서 '2000년 비상 학생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총 재적인원 98명 가운데 48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등록금 동결을 위한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기로 논의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본교에서는 처음으로 전개되는 납부거부운동은 학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인 오는 8일이 지나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강

력하게 항의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만큼 제적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달 29일 현재 각 단위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 30여명은 납부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주 안으로 등록금 납부거부 선언용지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이미 냈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금을 내야만 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납부거부자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김은선 기자 eunsun@cakra.dongguk.ac.kr

학생회 보궐 선거 소식

졸준위 박병남(무역4)가 투표인원 33명중 찬성 32(97%)표로 당선. 공과대 정=안상수(전기3) 부=안갑현(전기3)이 투표인원 1053명중 찬성 971표(92.2%)로 당선. 법과대 정=임승현(법3)이 투표인원 265명

중 찬성 253(95.4%)로 당선. 불교대 정=주성하(불교4) 부=김현석(선4)이 투표인원 161명중 찬성 144(89%)로 당선. 예술대 정=이은석(연극영화4)이 투표인원 288명중 찬성 245(85%)표로 당선.

박물관 자원봉사 제도 도입

박물관(관장=장충식·한국미술사)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자 제도를 도입해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 박물관 중 국보 3점을 비롯한 불교 미술품 소장현황이 단연 으뜸인 본교 박물관이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대학원과정에 있거나 이미 수료한 8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난달 28일부터 1차 교육에 들어갔다. 오는 7일과 11일에 걸쳐 2차, 3차 교육이 있고, 18일 오후 2시부터 박물관 유물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실시한다. 자원봉사일시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고미술 수집가 이희봉(43세)씨가 보존상태가 좋은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좌상'을 기증했다.



동전남부... 지난 30일 본관에는 동전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려는 학생이 있어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학생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먼저 앞장선 것이라고 한다.

김현중 기자 roket123@cakra.dongguk.ac.kr

여학생실 정보화교육 실시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지난 달 27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인터넷' 교육, '엑셀과 파워포인트' 교육으로 진행된다.

계산관 1층 여학생실에서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교육받을 수 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주간 박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이메일 ID dgu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661)770-2058 팩스 (0661)770-2057

경력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모집직종	근무지 및 모집인원	응시자격
일반직(건축)	서울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대학이상 건축공학과 및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현장감독 및 관련분야 5~10년 경력자 병원건축현장 경험자 우대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1차·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 통보
- 신체검사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소정양식, 반영환관 칼라사진 부착) 1부
- * 본교 홈페이지 게재(http://www.dongguk.ac.kr)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각 1부
- 불교도신행증(소정양식 : 조계종 산하 사찰 신도증명) 1부 :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세부경력확인서(기간, 건축현장(근무처명), 발주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본인확인) 1부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00. 4. 6(목) ~ 4. 7(금) 17:00 한, 서울캠퍼스 인사관리팀

5. 기타사항

- 모집직종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서류미비 또는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서울캠퍼스 인사관리팀 ☎02-2260-3859/60
http://www.dongguk.ac.kr(지원서 등을 Download할 수 있음)

백일장 안내

국어국문학부(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문과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갖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 일시 : 2000. 4. 29(토) 10:00 ~ 17:00
- 장소 : 만해광장(우천시 중강당)
- 부문 : 시, 소설, 수필

* 각 부문 입선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줌.

- 신청기간 : 2000. 4. 4 ~ 4. 21
- 신청장소 : 국어국문학부 사무실
(교수회관 427호, 전화 : 2260-3151)

동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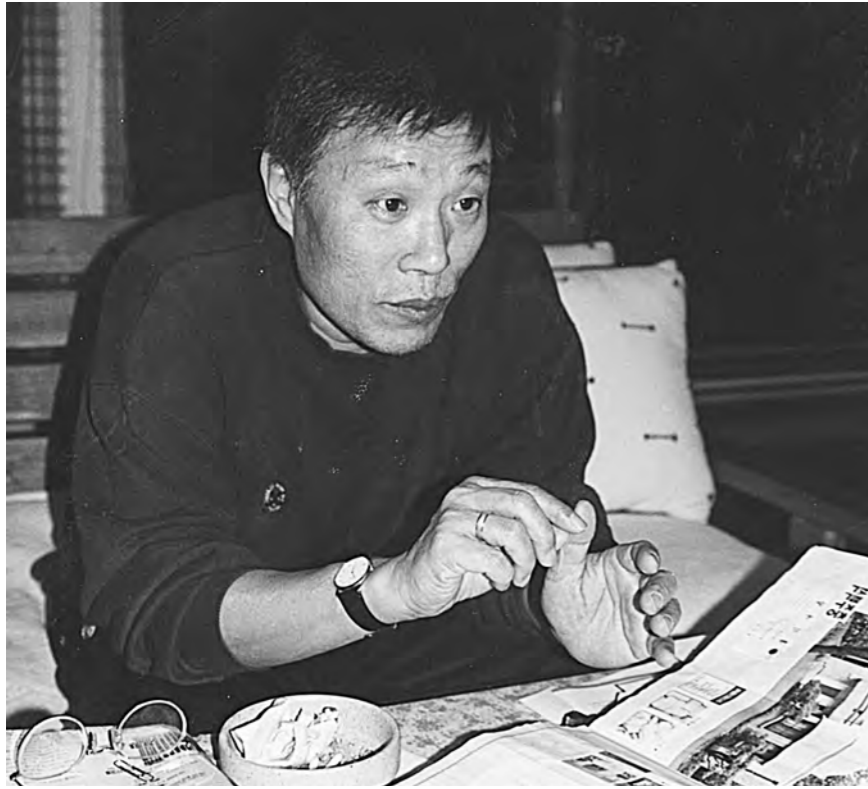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약력

1943년 민주 장춘 출생
1972년 동국대학교 철학과 재학
1989년 방북
1991년부터 베를린, 뉴욕 망명 생활
1993년 귀국 7년형 선고
1998년 3·1절 특사로 석방

아직 내 삶은 적응과 극복의 연속선상에 있다

굴곡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안은 작가 황석영 ... 사회 모순의 핵심을 꿰뚫는다



사진/정진아 기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하지만 10여 년 간의 방북, 망명, 육중생활을 거쳐 비로소 충남 덕산으로 흘러든 작가 황석영 씨는 고인 물이기를 거부한 채 힘차게 용솨음치고 있다.

그는 10년간의 단절 속에서도 결코 한국문학과 한국문화를 잊지 않은 채 끊임 없이 사회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작가로서 현실과 현재에 대한 안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황석영 씨는 '장길산', '삼포가는 길'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이미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1943년 민주 장춘에서 태어난 황석영 씨는 어린 시절 6·25를 겪으며 고등 학생 때는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를, 대학에 와서는 6.3사태를 목격하며 격변의 현장에서 반세기를 보냈다. 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현장에서 혹은 그 가까운 곳에서 역사의 중요 장면들을 목격한 그가 당대의 리얼리즘 작가로 손꼽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조로서의 리얼리즘을 거부한다. 마치 유행과도 같은 사조의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 살아 생동하는 창작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리얼리즘을 일한다. 민중 속에서만이 진정한 문학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황석영 씨는 스스로를 판파리(광대)라고 칭한다. 굿, 판소리, 탈춤, 인형극 등의 전통적인 민중 연희를 고찰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문학세

계를 구축해 온 것이다. 광주항쟁을 거치고 베를린에서 열린 제 3세계 문화제 참가를 계기로 황석영 씨는 실천적인 작가로서, 작가 이상의 사상가로 혹은 통일 운동가로 인식돼 오고 있다. 89년 범민련 대변인 자격으로 방북한 이래 5년간의 망명생활, 또 다시 5년간의 육중 생활을 마친 황석영 씨는 이제서야 0.8평의 정치범 감옥이 아닌 안식처를 찾아 전원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군가 말했다듯 정치 사회적 현실의 '바깥'에서 끊임없이 '안'에 간섭하고 개입해온 '안에 있는 바깥'으로서 황석영 씨의 인생·문학·통일관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일간지에 연재하던 '오래된 정원'을 탈고 하셨는데 감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여전히 글쓰는게 고역이에요. 몇 십 년을 써오면 익숙해지기도 하련만 신인 때처럼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늘 '그만 하고 싶다' 생각만 하죠. 지금부터는 그 동안 미뤄둔 숙제를 할 생각이예요.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손님'이라는 작품도 마무리 지어야 하고 일간지에 요리칼럼도 써볼 생각이예요. 내가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손님'이라는 작품은 판소리 120마당의 독특한 구성을 따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작품은 내가 황해도 신천을 방문했

을 때 구상한 작품이에요. 신천에 '미제양민학살기념관'이 있는데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안내원이 격양된 어조로 미군의 만행을 성토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황해도란 곳이 참 재미있어요. 이데올로기 그 자체거든요. 조선시대 토지제도에서 비롯된 이곳의 계급은 대지주보다 중간계층이 두터워요. 그래서 한참 외국의 문물이 들어올때 기독교인과 맑시스트로 양분됐고 이들이 500일간 서로를 학살한거죠. 기독교도 맑시즘도 모두 서양에서 들어왔기에 이를 손님으로 상징화했고 전통적인 궁거리와 접목했어요. 예부터 손님은 천연두, 마파라고 불리는 서(西)병이었거든요. 미제양민학살기념관을 보면서 천연두 못지 않은 서(西)병으로 인한 살육현장에 가슴이 아팠어요.

굿, 판소리, 미당극 등 전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데...

리얼리즘, 모더니즘 등은 낯선 형식이예요. 남미문학을 보면 인디오 문화·풍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신비스럽고 이국적이기도 하지만 낯설지가 않아요. 그들만의 전통에 충실했기 때문에 세계화에도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바탕에 깔고 이해해야 독특한 참신함을 가질 수 있고 영향력도 지닐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방북하신 걸로 아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비관적인 시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나'예요. 남한과 북한은 분열된 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민족적 잠재력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분열된, 하지만 언젠가 하나가 될 '자아'라는 사실만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통일방안은? 사회내부에서 힘을 끌어내 시작하는 통일이 돼야 합니다. 대중과의 소통속에서 변화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해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산가족부터 만나게 해주고 대화하면서 신뢰를 쌓아야겠죠. 문화·학술 등의 다원적인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동북아 연대를 강조 하셨는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적 대안입니까?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일찌감치 제 3세계를 형성하며 연대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남아메리카는 미국의 진보 지식인들과 아프리카는 유럽의 진보지식인들과 학술·문화적 연대를 쌓아가며 내공(?)을 연마하고 있다고 할까. 그런데 동북아시아는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대나무하면 바로 아시아가 연상돼요. 대나무는 모죽(母竹)을 심으면 뿌리가 땅을 통해 뻗어나가고 밖으로는 각각이지만 땅 밑으로는 그 뿌리들이 단단하게 얽혀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은 바로 대나무와 같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연대조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 이제는 문명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새로운 문명적 대안을 동아시아 민중 속에서, 우리 안에서 모색해 봐야 합니다.

선생님의 학창시절과 비교해 볼 때 오늘의 대학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은 예술대학에서 예술도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예술이 가르친다고 어디 배워지는 것입니까. 20대의 빛나는 창조적 소양과 감성이 이와 같은 틀 때문에 점차 빛을 잃어 가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성찰과 삶의 철학에 대해 사고할 기회를 줘야 해요. 이것만 되면 예술은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틀을 깨고 더 자유로운 사고와 감성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점점 실용적인 지식에만 목소리를 높이는군요. 문화도 소비문화에 몰두어 있고.

감옥에서 10년만에 돌아오니 대학생들이 모두 파편화 돼있어요. 문제인식에서 책임으로, 대안으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아쉬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역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작은 그리고 극복! 현실을 인식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겠죠. 적응만 하다보면 매몰되고 누군가에 의해, 무언가에 의해 조종되기 쉬워요. 반드시 극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이 중요해요.

요즘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고 작업도 워드로 해요. 일단 적응하는 거지, 그리고 극복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판지일보도 자주 읽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 판지일보보시려면, 또 대중들이 이를 따른다면 이 역시 적응해야하겠거든요.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접근법을 모색하고 극복하는 거죠.

시대와 작가 - '황석영'

투철한 시대정신으로 문제작 발표

황석영은 '객지', '삼포가는 길' 그리고 '장길산' 등의 작품으로 한국문학사에 뚜렷한 궤적을 남긴 작가이다. 초기에는 대체로 탐미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을 많이 발표했으나 '객지'를 발표하면서부터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민중적인 현실묘사의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그의 소설은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예리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과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유신정권의 개발우선 정책과 산업화·근대화의 파행적 전개 등이 황석영의 투철한 시대적식과 맞부딪침으로써 그의 소설을 더욱 문제적인 작품으로 이끌고 간 것이다. 특히, '객지'와 '삼포가는 길'은 도시화와 산업화 우선의 개발정책이 야기한 이농현상과 농촌의 붕괴현상 등 당시 사회적 모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작품이다.

예를 들면, '객지'에서 보이는 농촌의 붕괴와 더불어 나타난 일용직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의 등장이라든가, '삼포가는 길'에서 보여준 영달, 정씨, 백화과 같은 뜨내기 인생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세밀한 조명은 당시의 한국소설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의 이러한 작품은, 이후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윤홍길의 '아홉살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에서 보듯이, 산업화의 뒷전으로 밀려난 민중과 도시민민의 문제가 소설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가 80년대에 발표한 장편소설 '장길산'은 지배층 중심의 사관이 두드러지는 기존의 역사소설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 넘어서 홍명희의 '일격장' 이후에 단절된 민중적 영웅상을 소설 속에서 다시 부활시킨 작품이다. 민중의 한을 역사번혁의 힘으로 승화시킨 그의 소설은 근본적으로는 '역사의식'의 바로세우기에서부터 출발하며 남성적인 투박한 '힘'이 두드러지는 강한 문체로서 소설 전체의 이야기를 박진감 있게 전개시키고 있다.

'객지'와 '삼포가는 길'의 결말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소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와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의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마치 풀뿌리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미래를 향한 강한 투쟁의욕과 생명력을 발산하는 '인물'의 부각은 그의 소설의 뛰어난 매력이다.

한국소설가 중에서 가장 '남성적인 힘'을 많이 지닌 작가로 꼽히는 그의 작품은 실제로 80년대이후의 여러 작품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80년대 민중문화와 노동문학의 계보는 그의 소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작가는 태생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대와 현실에 대한 증언자이며 또한 직접 자신의 몸을 시대의 격랑 속에 던져 그 거친 물살의 흔적을 자신의 몸과 작품 속에 그대로 새겨 놓는 존재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시대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작가도 결국은 그 물살 속에 자신의 뼈를 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석영은 한국의 근대사라는 혼탁한 타류 속에 기꺼이 몸을 던졌고 또 그 격랑의 흔적을 생생하게 증언해 온 작가이다. 시대가 자신을 비켜가기를, 또는 자신이 시대를 비켜가기를 용납하지 않았던 투철한 작가의식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 춘 식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문학평론가)

동대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

■ 연사 : 황석영	■ 일시 : 2000년 4월 17일(월) 오후 4시
■ 장소 : 종강당(본관)	■ 제목 : 아들을 위하여 - N세대에게 고함.

최은진 기자

네트워크 기술로 경쟁하라

디지털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필요

인간과 기계의 결합, 막대한 정보량의 공유와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 화상전화,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등 불과 몇년전에 영화에서나 공상과학소설에서 보아왔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 되는 것은 디지털이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디지털기술은 21세기 신산업분야 창출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디지털혁명은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이며 그 바탕이 되는 전자산업은 세계적인 대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의 전자산업은 70~80년대의 기술도입과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을 둔 가전, 부품산업의 모방과 대량생산의 조립산업, 90년대의 첨단 전자산업에서 최근의 정보가전과 통신, 첨단부품, 콘텐츠를 종합한 디지털 전자산업에 이르렀고 디지털은 여러 대기업의 중요한 사업이 될 뿐 아니라 산업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깊숙히 침투했다.

정보산업부문은 이러한 일련의 현상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다.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정보사회에서는 네트워크 기술이 경쟁력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이다. IMT2000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음성은 물론 동영상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IMT2000단말기를 통해 음성 전화를 비롯한 전자우편, 영상전화 등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를 예상한 상당수 사업자들이 IMT2000 서비스를 겨냥해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IMT2000 단말기를 통해 동영상으로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세계 이동통신(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을 지향하고 있다. 여태까지 이리들을 비롯한 위성전화들은 실제 세계를 이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위성마다 각기 다른 표준을 채용하고 있어 세계 이동전화로 거듭나는 데는 실패했다. IMT2000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인 표준화를 이루고 어디서나 같은 단말기로 사용가능한 세계 이동전화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온 분야가 컴퓨터와 정보통신이었다면 앞으로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갈 분야는 정보가전이라는게 산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디지털TV는 기존의 '단방향 매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터랙티브 방송을 가능케한다.

2005년을 전후해 대중화될 디지털TV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디지털TV는 우선 기존의 TV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뛰어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해줄 뿐만아니라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녹화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와 인터넷 검색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 통신을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전자우편과 음성 등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볼 때 축구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각도를 시청자들이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시청할 수도 있다. 또 경기를 촬영하는 TV 카메라의 렌즈크기의 조절은 물론 하나의 TV로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디지털은 산업, 체육, 의학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분야가 무한정하다. 그러나 디지털이 결코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본교 홍유표(전자공)교수는 "디지털이 만능은 아니다. 디지털이 자동화하기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날로그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며 "마치 TV가 대량 보급됐다고 해서 라디오가 박물관의 유물로 전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기술적 변화에 대해 그는 "지금 디지털 기술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기업이 과대 포장한 결과일 뿐이다. 현재 기술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의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현중 기자
rock123@dgu.ac.kr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정보의, 정보기술에 의한, 정보사회를 위한

정보사회 관련된 바람직한 입장...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서 출발·보편적 접근 이뤄져야



런 기업들의 광고가 장악했다. 웹사이트의 주소소를 나타내는 무슨 무슨 닷컴은 이제 기업의 이름까지도 모두 바꿔 놓고 있고, 기업들이 입주해있는 거리는 이제 닷컴의 홍수가 되었다.

사람들끼리 만나면 과거에는 먼저 통성명과 전화번호를 묻던 것이 어느새 부터인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를 묻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었다. 만일 둘 중의 하나라도 없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의아심과 동정심 섞인 시선을 보낸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선두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되고 이에 따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된 정보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의하면 전 인구의 반이 휴대폰을 갖고 있고 전 인구의 4분의 1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속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이다.

이렇게 급속하게 정보기술이 확산하는 것과 비례해서 언론과 학자들을 선두로 사회 각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사회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크게 정보사회 혹은 정보기술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눌 수 있다. 낙관론에 의하면 정보기술은 경제적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정치적으로는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 개개인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게 하고, 문화적으로는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해주며, 또한 정보사회는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해준다. 반면에 비관론에 의하면, 정보기술은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가진 자들과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며, 따라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정보사회가 정말 우리 코앞에 와있다는 것을 느낀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얼마 전부터인가 지하철 내부는 각종 정보 기술 관

서 경제적 불평등은 정보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치집단의 무한정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문화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획일적인 상업문화의 보급만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정보기술에서 나타나는 익명적 의사소통은 공동체의 허상만 제공할 뿐 개인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소외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두 입장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두 입장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두 입장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으나 기술결정론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공유한다. 즉 정보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은 모두 정보기술 자체가 한 방향의 사회적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낙관론은 정보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비관론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술결정론은 자칫하면 정보기술에 대한 맹신이나 무조건적 거부라는 극단론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사회와 정보기술을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무엇보다 정보기술 혹은 기술은 그 자체가 한 방향의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기술결정론을 거부해야한다. 맹목적인 낙관론은 정보기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통제, 대량실업의 발생, 경제적 계층의 심화에 대해서 방관하게 만들며, 맹목적인 비관론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의 성장, 시공간을 넘어서 전개되는 시민사회운동, 다양한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정보기술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

하는가에 따라 그 사회적 결과가 달라진다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교육기관, 시민단체는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정보기술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공동 참여해야 한다. 이는 누구나 정보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의 핵심인 경제불평등과 정보불평등간의 고리를 끊고 정보기술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이동이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끝으로 정보기술의 개발과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정부, 학계 등이 공동으로 사회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반드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보기술 및 정보사회에 대한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를 만들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분야별로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의 요건들이 실현될 때, 우리 사회는 정보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최대화되고, 잠재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박찬용 교수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네그로폰테 교수 강연회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열린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낙관론 제시

지난 달 20일 미국 MIT대학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교수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The New Digital Age'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고려대학교와 한국전선원, 포스코(POSCO)에서 공동주최한 이날 강연회는 1천여 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간 반 가량의 강연과 삼십분 정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네그로폰테는 1995년 '디지털이다(Being

digital)' 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 디지털 사회로의 혁명을 예견했던 것처럼 이번 강연에서도 역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디지털 세계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네그로폰테 하면 그를 아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낙관론자' 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곤 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미래의 낙관적인 디지털 시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강한 확신의 이면에는 딱딱하고 차가

운 이미지를 주는 기술의 가능성보다는 21세기를 짊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겨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그로폰테의 저서인 '디지털이다(Being Digital)' 를 보면 "나의 낙관주의는 추후에 이루어질 발명이나 발견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다. 암과 에이즈의 치료약 발명, 인구 조절 방법, 공기와 바닷물을 마신 후 무공해 공기와 물을 토해내는 기계의 발명 등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꿈들이"라며 "디지털 세상은 다르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발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상은 본성이 발생적이다. 신세대는 앞선 세대보다 디지털에 더 가깝다. 디지털의 미래 비트(bit)를 통제하는 일은 바로 젊은이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이 사실이 가장 기쁘다"라고 말한다.

또한 네그로폰테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흐름과 변화와 더불어 미래사회의 긍정적 양상을 읽어내고 있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지난달 20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네그로폰테 교수의 강연회가 열렸다.

디지털 경제

가상 공간속 신 경제패러다임을 위하여

인터넷 경제로의 전환점 ... 정부의 다양한 정책, 변화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 필요

한국의 정보초고속도로 (information superhighway)는 40조원이 투자되어 2005년까지 예정된 일정보다 5년이나 빠르게 구축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LAN(Local Area Networks)이 설치되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1999년말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천만 명을 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새로운 이용자가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며, 접속 속도가 점점 느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천배이상 빠른 차세대 인터넷 (next generation internet)의 개발이 추진될 계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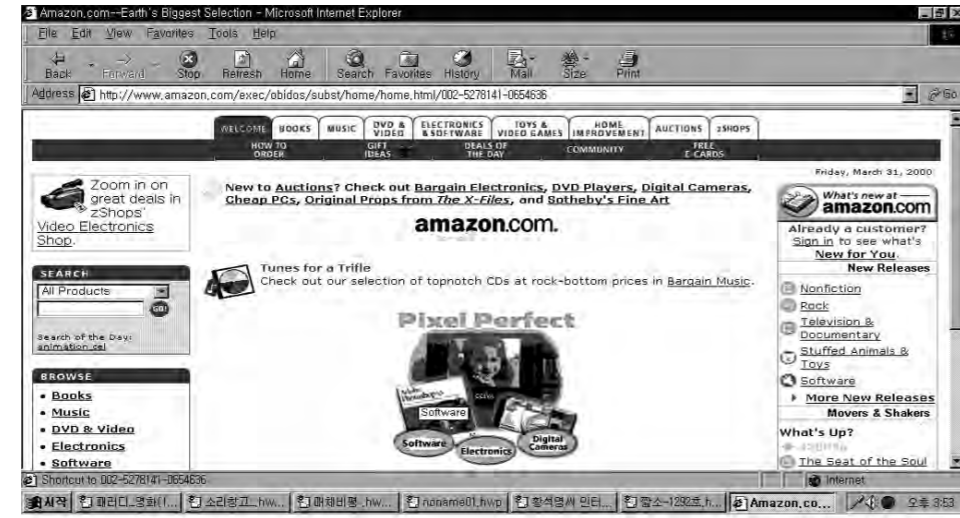
인터넷은 시간 파괴, 비용파괴, 공간파괴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및 대민 행정업무, 전자소싱물을 중심으로 한 기업과 개인간 상거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와 CALS(Commerce At Light Speed)의 기업간 거래,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업무, 가상대학을 통한 원격강의, 사이버 주식 투자, 인터넷 방송국 및 문화 영역 등 정부·기업·가계에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국가간 재화와 서비스 교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

사이버무역 (cyber trade)은 국가간 재화와 서비스 교역을 위해서 인터넷, EDI, 기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해외시장 정보검색에서 마케팅활동, 수출입계약체결과정, 수출입 선적과정 및 무역 분쟁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고 하며 이는 전자상거래의 국제간 교역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와트 계량경제연구구는 2003년까지 전세계 사이버무역의 규모가 1조 7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기관들은 2004년에 한국 총수출의 30%가 어떠한 형태로든 인

터넷과 연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무역 관련 인력 양성에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가상기업 (Virtual Corporation)은 가상공간, 즉 거의 얼굴을 맞대지 않고 오로지 전자수단으로 의사교환을 하고 작업을 공유하는 근로자를 지리적으로 분산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세계에 흩어진 기술자들 및 연구자들과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제품 설계 및 개발, 생산 등을 CALS에 의해서 자료를 공유함과 동시에 작업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여 비용절감 및 시간 절약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것이다. 물론 제품 개발 이외에도 마케팅,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인사, 경리 등 업무도 지리적 분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체 핵심역량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외부(out-sourcing)를 주는 기업도 많아질 것이다. 수많은 가상기업의 출현에 대비한 정보 인프라 구축, EDI 및 CALS의 표준화 작업 및 정보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정부의 정보교

육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60만 군인들, 90만 공무원, 그리고 100여만 주부들이 컴퓨터 과정을 택하도록 권장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많은 대학에서 입학의 주요한 부분으로 부상될 것이고 이에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국가가 인터넷상에서 e-business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번성하는데 영어를 포함한 외국

어가 진요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e-business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외국어를 배우고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역을 위한 지원과 외국어 능숙자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터넷 라운드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 자세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인증과 보안, 전자지불의 안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산·학·관 연구를 지원해야할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주시하면서, 한국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 화폐와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현재 법률이 개정될

것이며, 전자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이다. 민간기업에게 전자상거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조세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세 관련 법률이 보다 투명하게 효과적으로 제정될 것이다.

정창근 교수
경상대 국제통상학과

전자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이다. 민간기업에게 전자상거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조세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세 관련 법률이 보다 투명하게 효과적으로 제정될 것이다.

전자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부의 크기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다시 태어나서, 정부정책과 시민의 민원이 공개될 것이고 시민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를 두어서 정부의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실행을 계획하고 조정할 것이다.

기업부문의 지식기반을 향상시켜서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구조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며, 정보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와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조달행위, 수출입 업무가 EDI시스템을 이용해서 수행될 것이며, 인터넷EDI가 EDI의 상대적 고비용의 단점을 보완해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2001년까지 CALS는 자동차와 전자산업 등 여러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도입될 예정이다. 인터넷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 공산품 및 디지털제품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농산물의 직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산물에도 인터넷소싱물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은 더이상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 경제로의 전환점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모든 경제 관련 사람들은 급변하는 변화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Global standrad를 정하여 세계에서 일류를 지향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지속적인 정진이 요구된다.

정창근 교수
경상대 국제통상학과

테마가 있는 비디오 - '정보 사회'

넷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우연히 신종 컴퓨터 범죄 집단의 그물에 걸려들어 기업과 고위층의 비리를 밝혀낸다. 범죄 집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존재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일도 일어난다. 모든 문서 처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즘,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만한 소재와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이 정보·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사립의 존엄성이 단순한 기계조작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차라리 공포스럽다.

어린 윙클러 감독, 샌드라 블록 주연, 15세 이상 관람가.

코드명 J



현대의 디지털 세상이 20여년 후에는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다.

서기 2021년, 지구는 테크놀로지의 정점에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대신해 주며, 추억까지 삭제·재생하는 일이 가능한 사회 속에서 머릿속에 집을 박아 두뇌를 정보 밀반출에 쓰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아 인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컴퓨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경종을 울린다. 영화속에서 연출되는 미래의 사회상과 자기가 상상해 오던 미래상을 비교하면서 감상하면 더 좋을 듯.

로버트 룬고 감독, 키아누 리브스 주연, 15세이상 관람가.

해커즈



해커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제동을 건다. 11세때 해킹사건을 일으킨 죄로 보호관찰 7년을 선고받은 컴퓨터 천재소년이 18세가 되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전학한 학교에서 만나게 된 해커 친구들과 벌이는 해킹의 연속.그러다가 장난삼아 복사한 '쓰레기 파일' 때문에 이들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쓰레기파일에 얽힌 음모를 밝혀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싹트는 우정과 사랑이 영화의 재미를 더해준다.

이인 소프리 감독, 제니 리 밀러 주연, 15세 이상 관람가.

스튜어트 리틀



영화일 수밖에 없는 가상의 소재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스튜어트라는 조그마한 새앙쥐를 동생으로 맞게 된 조지와 새앙쥐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고양이 스노우벨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 영화 한편으로 이미지 워싱턴의 디지털 기술이 얼마만큼이나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다. 스튜어트의 디자인 80여가지와 모델링 30가지 등등 기획부터 상영까지 오랜 시간 기술력이 투입된 영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따뜻하다. 디지털의 효과로 완벽하게 새앙쥐의 모습을 영상화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기술의 발전을 실감케 한다.

로브 민코프 감독, 마이클 J. 폭스 주연, 전체 관람가.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정보의 바다에 철조망(?)을 치다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 방안 모색해야

인터넷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 이상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정보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다. 3700만대의 호스트 컴퓨터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은 전 세계인이 시공을 초월해서 대화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게끔 한다.

바이흐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에 없어서는 안될 매개인 것이다. 초기 군사적 목적에서 탄생되고 발전해온 인터넷은 이제 더 이상 특수 목적을 위한 정보망이 아니다. 보다 생활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상업적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이른바 '정보기술의 혁명'이라 불리는 정보 창출, 전달, 공유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음란·외설성의 불건전한 정보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보의 무단 유통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여자 탤런트의 사생활이 담긴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은 자체를 통제하는 기구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를 특정 국가나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날로 규모가 커져가는 정보의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 각국마다 나름대로의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규제하는 방법은 자율적인 규제와 법적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율규제를 더 강조한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자율규제와 최소한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법적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되 하면서 자율규제의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96년 미국 정부는 인터넷 통제를 위해 '통신취급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미헌법의 '수정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블루리본 운동'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 수준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으나 여전히 수제를 풀지는 못한 것이다.

앞으로 점차 발전의 속도를 빨리해 가며 깊이를 더해갈 정보의 바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인터넷상의 윤리와 규제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더 발전적이고 건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체로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겠다. 최은진 기자

(멀티게놈) 시대를 여는 유토피아 나무를 심자

유토피아 나무 숲 속 에덴동산을 꿈꾼다

인류 3대문제 해결이 눈앞에...



'유토피아나무'의 싹을 틔운 동양인은 미래의 지구촌을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나누며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나무 숲 속의 에덴동산을 꾸미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꿈을 현실화한 연구결과이다.

꿈의 유전체, 유토피아 나무

앞으로 21세기뿐만 아니라 지구(Eden)의 영원한 푸른 꿈을 심어주고 다듬어줄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현재 지구의 3대 위기 과제인 식량, 에너지, 환경과 또한 생명수인 청정, 물, 공기(산소), 가뭄과 홍작, 폭우와 홍수범람 및 호우와 태풍 등의 환경 기후변화 이상에 의한 재해방지 및 쾌적한 푸른 숲 기능 등이 모두 담겨진 유전체로 구성된 꿈이 바로 유토피아 나무이다.

이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근 40여년간 수원시 소재 '유실수과학연구원'에서 '지구의 인류와 환경을 되살리고 인류와 환경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복합다기능성 싹종'으로 육종된 것이 유토피아 나무로 단순기능성 작물이나 경제환경수종 등의 실 수종 기능을 통합시켜 1개의 생물 속에 합성함으로써 지구의 좁은 지표공간을 십 수배의 필수자원 생산과 환경자원 생산은 물론 환경과오 오염 및 각종 기상 등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지구촌 인류의 행복권을 찾아줄 수 있는 무한의 '멀티게놈' 육종시대를 여는 21세기에 꽃피울 바이오 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 매김 되는 큰 꿈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싹종 육종으로 환경개선

따라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유실수과학연구원의 '에덴동산의 유토피아나무 숲'에서 '꿈나무 심기 운동본부'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지구촌을 에덴동산으로 만드는 첫 삽질이 본 '전지구적 푸른숲 만들기'로 시작되며 당 연구원내에 재단법인 '한국생물특허유전정보과학원'업무개시와 동시에 지구 사회환원 사

업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지구촌 위기와 대책을 살펴보면 지구촌의 적정 부양인구인 20억을 3배나 넘어서고 있다.

지구 같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진 우주계획을 시급히 완결해 부족한 생활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원고갈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사막화되어 초토화된 환경재앙으로 인류는 공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좁은 지구표면의 활용성 바이오 기술을 십 수배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인위적 녹색환경 기능을 포함한 강력한 멀티게놈 시대를 여는 싹종 육종의 파라다이스를 구축되고 있다.(지구상의 인류에게 식량, 에너지, 환경 등 삼대 문제가 가장 큰 난제며 이를 해결하는 청정=유토피아나무 숲 만들기 목표이다)

즉, 녹지 산림환경 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식량, 의약품, 목재와 에너지 등의 자원부족은 물론 환경자원인 맑은 공기(산소)와 물 등의 부족과 오염, 생존권의 적정온도와 습도의 조화와 유지는 물론 폭우와 동반된 토사유출, 홍수의 범람과 수해, 태풍 피해로 인한 각종 기상 재앙 등은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채 위협시키는 천재지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20세기의 눈부신 과학발전이 가져다준 과학문명은 앞을 보지 못하고 성장위주의 다량생산, 다량소비의 풍요로운 시대를 낳은 후의 종말에는 그만큼 다양한 지구촌 식량과 에너지 등 자원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으로 불살을 잃게 하고 있는 3대 과제를 안고 있는 지구는 이제 인류의 쾌적한 생존권의 생태계 복원사업 시행은 이미 적기를 넘기는 듯하다.

이러한 지구촌의 시급하고도 해결해야 할 비좁은 공간 확장과 이로부터 과잉인구를 부양할 자원생산 및 환경재난 등을 방지 복원하여 풍요롭고 평화롭게 우리 인류가 살아기려면 다양한 생물들이 가진 기능성 유전자를 한곳에 합성시켜 담당한 지구촌 위기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멀티게놈 육종시대를 열고 얻어낸 유토피아나무를 에덴동산(지구)에 심고 가꾸는 길밖에 없다.

유토피아 나무의 장점

구세주 같은 싹종 유실수인 이 나무는 앞으로 1000년 간 생존가능 장수목으로 키가 30~50m나 자라며 초심근성 수종으로 뿌리가 땅속 깊이 발달되어 뿌리와 토양 내에 산소와 물을 많이 저장하게 하는 바이오 탱크 기능으로서 가뭄과 태풍과 홍수범람 및 토사유출 등에도 파수꾼

이 되어 절대로 넘어짐이 없이 각종 습해와 한파 등에 강하고 재앙을 막아주는 안정성 기능과 식약기능성 과실 등의 다양한 복합 다기능성 자원 생산적 풍작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열매의 다양한 기능성 생리활성분자는 치매와 노화 및 암을 예방 치료하며 피부미용과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감소 기능성 성분은 현대병인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기능을 갖는다.

향기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가진 열매의 기호도는 지구상 최상급 식품자원과 값진 식약다기능성 성분으로 생명력을 가진 나무이다.

봄과 한 여름철의 청량감과 아름다운 시원한 숲과 그늘, 가을단풍의 정취, 겨울과 익년 6월까지의 계절적 변화형 양광조화 낙엽 기능성과 낙엽 된 가지 끝의 열매는 10여 개월에 걸쳐 나무 가지에 매달려있고, 그 맛있는 열매는 점차적인 자연낙과 기능으로 관상자원 생산양향원 수목으로서도 당면 으뜸이다.

한 그루의 싹종이 이처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유전체를 합성한 멀티게놈 바이오 육종시대를 열고 얻어낸 유토피아나무는 한가지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심고 가꾸어 온 단일기능성 일반 나무들이 10그루 심을 공간에 복합 다기능성(10개 기능 수종) 유토피아나무 1주를 심으면 10배의 지구표면의 공간을 확대 생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단순기능성 싹종을 차단하고 복합 다기능성 녹지 산림자원 경제립 조성과 도시립, 산지립, 관광조경 풍지 휴양립 등의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 시급하고 완벽하게 유토피아 나무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지구촌의 난제인 초과되고 과밀된 인류의 생존공간과 환경을 십 수배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우리 인류의 필수 자원생산과 생존 환경자원(산소, 물) 생산은 물론 환경정화 기능성과 함께 환경 및 기상재해 등으로부터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케 됨으로서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발목을 잡는 기후변화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뉴라운드 및 세계 불포럼 등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내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석전초의 특성을 가진 유토피아나무 숲으로 지구환경을 복원하고 꿈의 에덴동산을 만드는 것이 지구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사는 지름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박 교 수
생지대 산림지원학과 교수

대체의학(한방)

한방 대체의학의 길찾기

침, 뜸, 한약, 기공 등 다양한 치료법 연구

국가 지원 뒷받침...효율성·안정성 보장

"**유체의학**"이란 현재 전세계적으로 의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도권 서양의학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는 세계 각국에서 저마다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의학적 치료법이 서양의학의 영역으로 도입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의학이란 이름은 그 자체가 전적으로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붙여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대체 의학을 제도권 서양의학으로 도입한 목적이 서양의학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체 의학을 "보완의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체 의학의 의학적 치료영역에는 한국, 중국 및 인도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천년간 한의학 치료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침, 뜸, 한약,推拿, 기공 및 요가요법과 더불어 카이로프랙틱, 향기요법, 심신요법, 산소요법 등과 같은 약 50여종의 다양한 치료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각국의 대체 의학 연구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국립보건원 산하에 대체 의학국을 설립함과 동시에 많은 정부 자금을 연구비로 할당하여 효과적인 대체요법을 검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65~85%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차 보건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제도권 서양의학이 아닌 각국 고유의 전통적 치료법에 의존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 성인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약 8천 3백만명이 대체 의학 요법자들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대체 의학의 열풍이 불게 된 원동력은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기 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자인 일반인들에 의하여 먼저 주도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보건기구 혹은 미국에서 보고된 다수의 통계자료에서 시사하듯이 대체요법은 이미 음성적 혹은 양성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체요법 시술자들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비제도권 대체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제도권 서양의학은 많은 인적, 물질자원을 동원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 에이즈, 치매, 당뇨병, 심장질환 등과 같은 다수의 난치성 질병들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세계는 이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직면해 있으며 특히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경제적인 의료기술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 배경은 대체 의학으로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체 의학이 대두된 동기를 근거로 향후 대체 의학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인보건 문제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제도권 서양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 의학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정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대체 의학으로의 인적자원 및 물질자원의 공급과 제도적 정비작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체 의학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의료질서의 혼란과 국민보건의 위협 요소가 되는 부적절한 대체요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음성적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따라서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대체요법을 감시하는 기관의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은 비로소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체요법에 대한 임상적,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란 관명되는 요법들은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국민 의료비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새로운 의료시장의 창출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 향상에 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은 한국의 오랜 역사속에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며, 특히 침, 뜸, 한약 및推拿요법 등을 이용한 치료 의학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양생을 통한 예방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세기말 코흐와 파스퇴르 등에 의해 선도된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 서양의학의 강점이 크게 부각되었고, 조선말기 서양의학의 도입과 함께 한의학은 급격하게 제도권에서 소외되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제시대,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한의사 제도의 정립과 더불어 한의과대학에서의 한의학 교육, 전국민 한방의료보험 등이 실시되면서 한의학은 다시 전통 의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 한의학 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비로소 한의학 연구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병존하고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체 의학 분야에 대한 물질, 인적 및 지적 자원이 풍부하므로 이 분야에 관한 미래성이 적지 않으며, 본 연구에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이 강화된다면 대자본을 동원한 서구국가들의 대체 의학 연구에 비해 기대 성과가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민 보건의 향상에도 손색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대체 의학 연구의 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역수입해야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한

약사 제도, 의약분업, 의료보험수가 조정 등의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관련한 이러한 국내의 제도적 정비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만간 밀려올 전세계 대체 의학의 물결을 선 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아니면 대체 의학이든 감정적 대립과 학문적 독선을 초월하여 "최선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대체 의학 분야에서는 국내 자원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므로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서구국가들로부터의 재빠른 제도적 모방과 생색내기, 그리고 뒤따라가기와 같은 수동적 자세로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문진영(한의과대학 전임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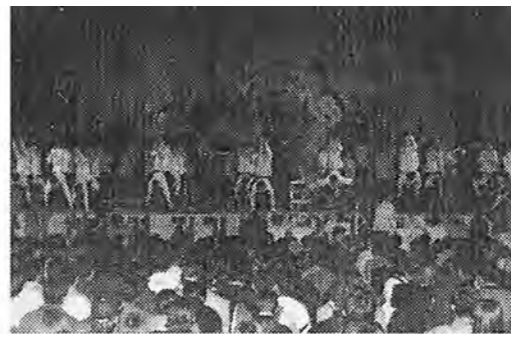
6기 전대회 총회



1기 한총련 대대회



4기 한총련 대대회



5기 한총련 대대회



5기 전대회 총회



4기 전대회 총회

청년 학생의 자주적 대중조직 한/총/련

8기 대의원대회

정권의 탄압으로 무너질 조직이면 세우지도 않았습디다

비록 2년동안 제대로 치뤄내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반드시 성사할 것입니다.

활발한 토론의 장, 힘찬 결의의 장을 만들어 냅시다

● 일 시 : 4월 7일 ~ 9일

● 장 소 : 전남대학교

● 행 사 : 의장선출/전야제/본회의

새내기한파당/과 전진대회 등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녹두메모판, '박물관의 골동품' 되어버려

시대의 흐름따라 역사깊은 녹두서점도 점차 변모

후문 앞 녹두서점 앞에 설치된 '녹두 메모판'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절지 크기의 메모장 상단에는 셀룰라테이프가 달려있고 하단에는 신간서적들을 안내하는 글이 나란히 붙어있다. 그러나 요즘 이 메모판

을 이용하는 이는 거의 없다.

녹두 장군 전봉준의 이름을 딴 녹두서점은 80년대부터 서점 안에 8절 크기의 녹두 메모판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 메모판은 주로 친구들과 약속하는데 쓰였다고 한다. 미처 약속을 정하지 못했거나 어긋났을 경우 녹두 메모판은 더없이 적절한 연락 수단이었다.

당시에는 서점을 이용하던 학생들만 이 메모판을 이용했지만 소문이 학교 안으로 전해져 점차 많은 학생들이 이 메모판을 통해 약속을 정하기 시작했다. 92년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메모판을 서점 밖에 비치하기 시작했고 이 작은 메모판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종이 쪽지들이 붙어졌다. 그야말로 '인기 게시판'인 셈이었다.

그러나 5, 6년 전부터 학생들이 하나 둘 빼빼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메모판에 붙어있던 종이들도 하나 둘 뜯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후 학생들 사이에 핸드폰이 대중화되자 이 '구닥다리'는 실 곳조차 없어졌다.

올해로 9년째 녹두서점을 지키고 있는 이을상(정치외교학 84)씨는 지난 92년부터 이 서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요즘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시대적인 흐름인데요. 하지만 핸드폰문화는 학생들을 옛날보다 더 계획성 없게 생활하며 불필요한 통화를 남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라며 일침을 가한다.

메모판 하단에 붙어있는 책소개는 이씨가 2년 전부터 만들어 운영해 오고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책들을 소개하기 위해 신문, 신간안내책자에서 오려서 붙인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조금 더 책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나 역시 메모판만큼이나 호응은 좋지 못한 편"이라며 "이또한 학생들이 옛날보다 공부를 안하는 징표"라고 쓸쓸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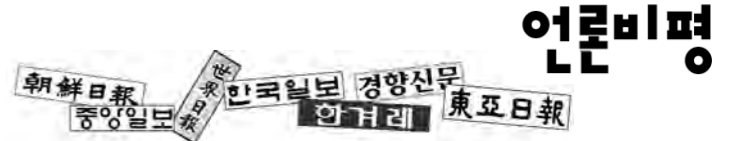
녹두서점은 메모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도 몇 곳 밖에 없는 사회과학부문 전문서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실 녹두서점이 사회과학 서적 이외의 다른 서적을 팔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서점은 처음 생길 때부터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찰들이 서점에 매일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이씨는 당시를 회고하며 "경찰들은 책 검사를 하기 위해 서점 곳곳을 뒤졌고 때문에 학생들과 가끔 충돌도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과거에 비해 사회현상에 무관심한 오늘의 대학생들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회과학 서적보다 실용서적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을 향해 이씨는 사회과학 서적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삶의 깊이를 느껴볼 것을 권한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cafera.dongguk.ac.kr



후문에서 50여m 떨어진 녹두서점 자판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녹두 메모판이다.



잘못된 여론조사 지역주의 조장한다

언론사별 여론조사 '천차만별'

지난 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대부분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자 지지율과 당선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접전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 객관성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 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각 지역의 1,2위간의 격차가 각 언론사마다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각 언론이 자사의 조사를 토대로 접전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언론이 자의적으로 접전지를 선정해 각 사가 지지하는 정당후보의 상승세를 강조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조선일보 여론조사는 지역감정 부추기기에 작정하고 나선 듯 보일 정도로 극심했다.

지역감정 부추기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민주 호남, 한나라 영남 석권' 등 철저히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고착시키는 분석을 보였다. 또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부각시키며 지역 대결로 몰아가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3월 27일자 5면 박스 기사로 실린 '지역주의 관철 통한 예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온통 지역주의 부추기기 분위기에 조성에 여념이 없다.

격전지 선정, 객관성에 의문 제기된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지난 2차 조사에서 10% 이내 접전지역을 선정했다는 것과 달리 10%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지역도 10곳이나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중 통대문 울과 보은, 옥천, 영동등 경우 지난 조사에서 16% 정도의 격차를 보인 바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한계 이내로 좁아져 그 차이가 현저하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조사방법이나 표본선정에 일관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문화일보, 쟁점별 지지율 조사는 긍정적

문화일보는 각 정당별 지지율뿐만 아니라 쟁점별 지지율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단 경마식 여론조사의 틀을 벗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분석한다든가 여론조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국제 규모를 평가하는 질문에서 한나라당 주장인 400조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7%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국제규모에 대한 이 문항은 여론조사 문항으로 적절치 않으며 최근 문화일보가 한나라당의 상승세를 강조하는 흐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로 분석한 것은 지역주의의 틀을 벗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람직한 여론조사 보도 사례 제시한 경향

한편, 경향신문 3월 24일자 여론조사 보도는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된다. 권역별 정당 지지율과 함께 안정론과 견제론, 낙선운동 호응 여부, 예상 투표율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여론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한 지지율 조사와 우열 분석이 오히려 지역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여론조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바람직한 시도였다. 특히, 낙선운동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보도였다. 더구나 낙선·낙선운동을 지지하거나 하지 않는 응답자의 성향을 분석해내어 자료 가치도 매우 높다.

동대신문모니터팀

오늘의 길

강 난 유 (한의대 한의예과 1)

신입생 모의토익 9백90점 만점

'외국어 공부보다 의사되고 싶어요'

00학번 신입생 모의토익에서 990점 만점의 이례적인 성적을 거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강난유 군은 의외로 수줍음 많은 소년처럼 자그마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집지 않은 일을 해 냈다고 감탄하는 기자에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풀었던 것도 3문제나 있었고..."라며 연신 겸손해 하던 그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 왔느냐는 질문에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6살 때 가족모두 뉴욕의 브록클린으로 이민을 갔었던 게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라는 말을 던졌다. 어린아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회상하던 그는 "하지만 언어 면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거든요."라며 옛 일을 떠올렸다.

현재 한의대에 재학중인 그는 상당한 외국어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학과를 선택했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더 배우고 싶긴 하지만 외국어 공부보다 어릴 때부터 꿈

이었던 의사가 되고싶었어요. 슈바이처 박사의 의료정신에 감동 받았거든요."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약간의 부끄러움 듯 했지만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한의사를 하셨어요" 조용히 덧붙이는 한마디에서 그의 열의와 조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드러나는 것 같았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자정이 지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는 그의 친구 말처럼, 성실한 면이 많이 보이는 그는 힘든 과 공부를 하면서도 "괜찮아요, 모두들 저만큼은 하는 걸요. 제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한다.

이런 무던함이 때로는 바빠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비해 더욱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며, 한가할 때 바이올린을 켜는 여유도 즐길 줄 아는 그가 언젠가 따스하고 현명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정미혜 기자
kai@mail.dongguk.ac.kr

의학상식

성 낙 진 (경주병원 가정의학과)

춘곤증(春困症)

만물(萬物)은 깨어나는데 나는 왜 졸리는가?

4-5월의 강의실, 열강(熱講)하는 교수님 얼굴이 점점 멀어져가고 우렁찬 목소리는 자장가인가? 평소에는 가볍던 눈꺼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 올해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작정했지만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예! 모르겠다. ~zzz~

봄에 기승을 부린다고 이름에도 봄(春)이 들어간 춘곤증은 졸음 이외에도 식욕 감퇴, 나른함, 권태감으로 인한 일의 능률 저하, 불면증 등을 보이기도 한다.

춘곤증은 의학적으로 질병은 아니기에 깊이 연구된 바는 없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은 많이 제시되어 있다. 외부적으로는 따뜻한 날씨와 높은 습도, 낮 시간이 길어진 변화에 우리 몸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다. 외부 기온상승으로 인해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우리 몸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을 피부 근처로 집중시켜 열을 방산한다. 이렇게 혈액이 피부부위로 집중됨에 따라 혈액이 다소 떨어지고 소화액 분비도 적어져 식욕부진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목욕한 뒤에 느끼는 나른함과 비슷하다. 내부적으로는 겨우내 움츠려

있어 적절한 운동을 소홀히 하는 등 몸을 맞이하길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아진 밤 시간으로 인한 수면 부족, 입학, 졸업, 개학, 취직, 전근, 새사업 시작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춘곤증을 최소화하고 신체 리듬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당분간이라도 과음과 흡연을 삼가는 등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균형 잡힌 영양섭취(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골고루 섞인 음식 섭취),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걷기, 달리기, 에어로빅, 수영 등), 충분한 수면이 도움을 준다.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한 메모 습관도 조금은 도움이 될 듯...

춘곤증 증상은 대개 1-3주가 지나면 사라지게 마련이다.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겨우내 잠복해 있던 질병(헌혈, 당뇨병, 신장, 간, 갑상선 질병 등)의 증상일 수 있기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기간 : 1999. 12. 27 ~ 2000. 3. 31

발전기금

- 5백만원 김애주(영어영문학과 교수)
- 2백만원 박성규(주)중부매일 대표이사)
- 50만원 유준철(김영관입학원 학무관리팀 팀장), 조희(중문2000졸)
- 45만원 권나리(명성여자중학교 교사), 김규식(동산고등학교 교사), 김병기(동도공업고등학교 실과부 교사), 김성숙(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부 교사), 손정수(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교무부 교사), 오세순(백신중학교 인성교육부 부장교사), 이경희(심원중학교 교사), 이법기(영석고등학교 교사), 이승호(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조명일(광신중학교 교사), 한송이(교육대학원)
- 30만원 구영경(일산초협관 조카), 김지예(교육대학원), 박성주(경주병원 간호과)
- 20만원 박정숙(경주병원 간호과), 서남순(경주병원 간호과), 서남순(경주병원 간호과), 이태영(포항병원 간호과)
- 10만원 이선영(일남대학원), 홍진석
- 5만원 정해숙(용화사 스님)
- 3만원 이순욱, 정혜련(선학90졸)

- 1천만원 농인회(김무위자보살님), 최규환(전북부안군청 군수)
- 5백만원 배준호
- 3백만원 김기상(안경박사), 김현일
- 2백만원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 이상립), 이길자(행정대학원), 황인석(전자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한금자
- 1백30만원 박기영(대영정보통신공사 대표)
- 1백20만원 이원식
- 1백20만원 광성용
- 1백만원 강대걸, 김현숙, 김경자, 김보원(전산원 교수), 김상오, 김애자, 김영아, 김은태(전자계산원 교수), 김정대(프레아타운), 김경숙, 김정일, 김중술, 김종인(보문사), 김주홍, 김중수, 김지상, 노재홍(프레아타운), 노환주(전자계산원 교수), 노희갑(프레아타운), 도창환(건축공학과 겸임교수), 문경숙, 박복근(대륙제관 부사장), 박봉준(대륙제관 전무), 박석민, 박인주, 박재철(전자계산원 교수), 박형무(전자공학과 부교수), 방계정, 배운성, 백문호, 사석진(대진고등학교 교사), 서성근(프레아타운), 서영일(만영엔지니어링 이사), 서태희(신광여자중학교 주임교사), 성불화, 손광호, 송백용(을지대학병원 과장), 신동선, 어숙녀, 여익구((사)연꽃마을 이사), 오주선, 원영자, 이갑중, 이경란(전자계산원 교수), 이동훈(연극영화학과 교수), 이병운, 이소정, 이운희, 이종선(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이희영(전자계산원 교수), 장성호(불교대학원), 장주석(프레아타운), 정명순, 정진숙, 조석규(대자기업 대표), 조정문, 조홍래, 최달영(한의과대학 교수), 하광석, 한

- 성규(동국대부속중학교 교감), 허관무(대일면사무소 대일면장), 홍윤분
- 70만원 신현주(교육대학원)
- 50만원 김응규(법무부 시설서기관), 김해림(소림정사 기획실), 마중철(제일은행 창신동지점 계장), 박신자, 백원기(전자계산원 교수), 손재순(서초장미어린이집 양호교사), 신현자(신주기획 대표), 심영식(교육대학원), 안선매(미술92졸), 양영진(사회학자 교수), 이규환(봉성기업사 대표), 이윤기, 이은주(법인사무처 직원), 장은심(교육대학원), 정영학(한국능력협회 선임역), 정필운(교육대학원), 지승연(승룡광업), 최진(SM정보기술 개발부), 하경일(경주병원 임상병리과 부교수), 허봉아
- 45만원 권오희(서울정보학교 교사), 김선욱(문정중학교 교무부 교사), 김중환(동국대부속중학교 교사), 문은희(교육대학원), 박선희(가락초등학교), 박수경(동국대부속중학교 수학교육부장), 박옥민(잠실고등학교), 박유리(성동기계공고 교사), 백은정(성동기계공고 연구부 교사), 서재립(서초구립장미어린이집 원장), 유정아(인현고등학교 교사), 윤미숙(방화중학교 특별활동부 교사), 이기운(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이덕준(백마고등학교 교사), 이민자(고척초등학교 교사), 이윤자(부일중학교 교사), 이재용(홍은중학교 연구부 부장교사), 임봉학(계원초형 예술대학 교무과 직원), 정봉순(하남시청 총무과), 정성열(광동중학교 교무부 교사), 조요인(서일중학교 교사), 지성근(수도방위 사령부 정훈공보부 홍보문화장교), 지정기(교육대학원), 차은경(영석고등학교 교사), 최미자(매송중학교 윤리부 교사), 최선욱(반포중학교 과학부장 교사), 최영달(대통령경호실 경호과장), 최자현(덕수중학교 진로상담부장), 최현주(서초점자공업고등학교 전자과 교사), 최희준(연남중학교 교사), 하귀녀(육정중학교 특별활동부 교사), 하창호(문산종합고등학교 교사), 한대화(체육부 야구감독), 한은정(명성여자중학교 교육정보부 교사), 유영수(부명고등학교 교사), 정

- 유석(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 30만원 김보경, 김보원, 김연수, 김인자(국어교육83졸), 나정식(나사렛대학교), 박병성(SG우주 MOTOR 무역부 대리), 박정수(알뜰한저나어린 대리), 선우현(금강종합건설 과장), 윤성욱, 이미영(교육대학원), 이승문, 장병현(태화사회복지관), 청담리기관차법우회, 한선자, 홍옥주(대생개발 반장)
- 25만원 구연광(경주캐피탈이사발관)
- 20만원 강기영, 김효신, 양숙희(서울중앙초등학교 컴퓨터 강사), 이대휴, 이혜성, 조원재(한국생약협회 경주시사무소), 천승욱(AIT KOREA INC. 과장), 추순남
- 16만1천250원 이해진
- 15만7천원 정영애
- 15만원 이순연
- 13만4천원 이대환(감로암)
- 11만8천원 익명
- 10만원 권혜진, 김남삼, 김달막, 김대희, 김우동, 김중환, 김창현, 김춘혜, 박순홍(묘원사), 백희숙(산업기술환경대학원), 서영근, 신혜연, 여은주, 연명순, 연진희, 오숙자, 오승설, 왕광옥, 유연순, 윤순남, 윤춘매, 이강운, 이경원(현대정보기술(주) 선임(김)), 이광우, 이출재(동성), 이훈재, 익명(3명), 임옥이, 최한갑, 홍시훈(김공93졸), 황준원(교육대학원)
- 9만원 나호준, 문성환, 박기순, 이미자
- 7만원 유대화임
- 6만원 김범수, 박균호, 박민정, 이승민, 차성부, 황성문
- 5만원 김남선, 김옥희, 남정자, 윤승섭, 이미희, 이흥구, 익명
- 4만원 강신자, 박용철, 이철은, 이희자(용산초등학교 교사)
- 3만원 권혁제(거양금융 총무부 팀장), 김경남, 김모란, 노미숙, 문정순, 박모임, 박옥주, 박정수, 박정애, 복지영, 성춘복(창국사 차장), 손연희(명법사), 안순남, 양우영, 유복순, 이경자, 임선화, 정준

- 도, 조동철, 최수희
 - 2만원 권희정, 권관일, 김정애, 김학순, 박미희, 박정연, 이경애, 이병호, 이윤근, 전연화, 조은재
 - 1만5천원 이종훈, 임사옥, 전경자
 - 1만원 김경숙, 김미자, 김범석, 김수남, 김애순, 김영자, 김태관, 김희광조, 문정윤, 박수현, 박순자, 심대희, 심장수(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심지영, 오근석, 원오규, 윤용대, 이명숙, 이평구, 익명(4명), 정성훈, 조규식(개백미술학원 원장), 조성순, 차동호, 차상환, 함영숙, 허병희, 혜명조, 홍순이, 홍용금, 황룡스님
 - 5천원 김애순(국문71졸), 이동은, 익명(2명), 조남욱
- 동국사망자등기금**
- 16만2천480원 하동규(전산통계99졸)
 - 5만2천740원 박상진(국악과 교수)
 - 4만8천360원 황상주(미술학부 교수)
- 특정목적기금**
- 6천만원 세종중권
 - 1천5백만원 골드윈코리아, 영원무역
 - 5백만원 정성도(동양증권 울산지점 지점장)
 - 1백만원 이옥화
 - 20만원 서중호(경주화랑고등학교)
- 장학기금**
- 1백40만원 최일삼(누리금융 대표)
 - 1백25만원 정영일(건축공학과 교수)
- | 기금접수 ARS 안내 | |
|--|--|
| 7000-119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02)7000-119로 하시면 됩니다) | |
| ■ 금 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입) | |
|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
| ☎ (02)2260-3300, 2260-3791~5 | |

달하나 건강에

선거참여와 시민선거혁명



임 배 근
상경대
경제학과 교수

“바뀌!”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화두다.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정치권을 개혁하자는 욕구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부적격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였고 총선시민연대도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가 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선거혁명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유권자가 할 일이지만, 부적격 낙선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병역의무, 납세의무 등 국민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지키지 않은 후보자가 모두 드러났다. 그리고 후보자의 범법행위에 관한 전과기록까지도 공개하게 되어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수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여전히 남는다. 유권자의 실제 투표행위는 아직도 합리성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사사로운 인연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국의 음식점에서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을 빌미로 선거용 먹자판이 벌어지고 있다. 새천년에 들어서 지금까지 퇴보적 구태가 지속되어야 할까? 후보자들도 바뀌어야 하지만 유권자들과 손잡지 않을 수 없다는데 한국정치의 비애가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선거혁명으로 한국 정치권을 혁신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투표율이 제일 낮은 젊은 세대의 선거참여가 필수적이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로 정보수집비용도 낮아진 만큼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gnorance)에서 벗어나 기권보다는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한 표로 부적격 후보자를 심판해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런저런 인연과 정에 약하다. 후보자가 저지른 잘못도 쉽게 잊어버리고 반민주적이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에게도 표를 준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제목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생각한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합리성에 기초하여 냉엄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여 시민선거혁명이 이룩되길 바란다.

‘한국의 술과 떡 축제 2000’을 다녀와서

“전통의 깊은 맛 담긴 떡 사세요”

지역경제 발전위한 행사 ... 미흡한 진행 아쉬워

지난달 24일부터 어제(2일)까지 “한국의 술과 떡 축제 2000” 행사가 경주 보문단지 내 신라촌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새천년을 열어가자는 우리의 맛·멋·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관광평소소를 알리고 지역소득을 높여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장 안에는 하얀 천막들 밑으로 도우미들이 각 지역의 유명한 민속주를 홍보하기 위해 시음회를 갖고 판매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떡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 시판에서는 술과 떡의 실물이나 만드는 도구, 자료 등을 전시해 소모임 또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 각종 프로그램들이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참여가 저조했던 예년과 달리 각지에서 훌륭한 특

특한 개성이 넘치는 떡들이 제조·판매됐다. 또한 계피떡, 쑥살기, 콩고물쑥절편, 주걱떡, 풍살기 등 지역별 특성을 가진 떡을 만들어 보면서 전통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주지역 전통떡의 가치와 깊은 맛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본교 관광대학에서 35명의 운영지원단을 결성하여 통역, 설문조사, 운영 지원 등을 한 후 행사 평가도 맡았다. 이에 서태양 교수(관광대학)는 “이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동국대 관광대학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자리였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행사장 입구부터 불된 잠산인들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혼잡한 주차질서 문제 또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행사장 한쪽으로 길게 늘어선 상가들은 축제



행사 중 떡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를 빌미로 이익만을 쫓아 들어 터무니 없이 가격이 비싼 곳들도 있었고 업체들간의 과열 경쟁 양상을 띠기도 했다. 산 가격으로 기본 좋게 맛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했던 취지가 빛이 바랜 느낌이 든다. 다음 행사에는 지나치게 상업성을 쫓는 판매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가 되길 기

대한다. 이번 ‘한국의 술과 떡 축제 2000’에서 드러난 행사기획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술과 떡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상품으로 육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이색 공간 진단

“여기를 화장실로 보지마!”

환경개선 움직임 ... 실내 음악과 전시등으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화장실이라고 하면 불결한 곳을 떠올린다. 우리가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가게 되는 장소임에도 화장실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변소’ 혹은 ‘뒤통’이라는 말과 함께 가난하게 살던 시절, 배설에만 뜻을 두었던 당시의 화장실 환경이나 모습이 우선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실에 대한 인식과 환경개선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화장실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화장실도 곧 문화공간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13일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발족과 함께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화장실을 문화적으로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꿔보자는 취지로 이들은 화장실 문화형성을 위해 한 줄로 서기 운동, 화장실 환경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각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일에 대해서도 홍보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 맞춰 인터넷에도 화장실 관련 사이트가 속속 개설되고 있으며 ‘미소공(美小空)’이라는 웹진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공공서나 공공 건물 화장실의 환경까지 바꾸는 힘을 발휘

한다. 고양시의 호수공원에 신축될 예정인 ‘고양시 화장실 전시관’은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약 30평 규모로 지어질 이 곳은 화장실내에 음악이 흐르고 액자가 전시되며 샤워 시설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팔공산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은 ‘아름다운 화장실대상’을 받았으며, 관광명소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면당해 온 화장실이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어쩌면 사회의 발전상에 걸맞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나. 그러나 화장실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질서에



송파구 ‘송파나루’의 화장실 내부 모습.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대안없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올바른 화장실 문화 형성을 위한 우리의 의식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다.

블루레인 기자
bluerain@cakra.dongguk.ac.kr

교수가 권한다



이 중 대 교수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드라마의 해부



드라마와 연극 등의 기본적인 지식을 저절로 습득하게 된다. ‘부조리극’이라는 용

“수학을 알려면 더하기, 빼기 등의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듯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도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마틴 에슬린의 원작을 사본들 ‘세상읽기’의 원재질이 번역해서 쓴 책.

영국의 BBC연출가로 있으면서 연극이론가인 마틴 에슬린이 이론과 실제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번역판에는 원작에 없는 연극대본이 예문으로 포함되어 있어 더욱 이해가 쉽다.

이문열 세계명작산책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성찰에 무관

심한 학생들에게 자기성찰과 반성적 숙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의 명작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작가 이문열이 그 동안

읽어본 세계명작 중에서 20대 청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을 테마별로 모아 놓은 책. 테마로는 사랑, 성장, 환상 등이 있어 취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다. 책의

후반에는 작품에 대한 이문열의 평이나 해설이 덧붙여져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10권 전집, 실험, 정가 권당 6천500원.

세일즈 맨의 죽음

“아직 끝나지 않은 IMF체제 아래서 고통받는 아버지로 지칭되는 개인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을 세일즈맨으로 산 윌리 로만이 들려주는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듬어서

한장과 맞바꾸려 하는 윌리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하는 아들 비프의 이야기가 자본주의 현실속의 우리 이야기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세계 최고의 극작가로 손꼽히는 아서 밀러의 작품.

12일부터 30일까지. 평일 7시30분, 금·토 3시 7시30분, 일 3시.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발전기금 기부(약정) 교직원 명단

기간 : 1999. 12. 27 ~ 2000. 3. 31

(9면에 이어서)

기부자	출연총액	부서	고재선	1,066,151	홍보팀	1,010,000
신상찬	1,036,256	전자계산원	김병훈	1,000,000	학생복지실	1,000,000
강형석	1,034,937	직원노동조합	김봉주	1,139,392	기획예산팀	1,092,365
송민수	1,217,367	구매팀	김영훈	1,056,651	학술정보관리팀	1,000,000
김광희	200,000	구매팀	유현립	1,056,651	발전기금팀	1,092,725
김규식	1,817,940	전자계산원	윤의선	1,073,280	학생복지실	1,049,543
한문우	1,580,000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이정희	1,000,000	학술정보관리팀	1,202,405
김두재	1,603,085	역경원	정경섭	1,183,409	출판부	1,039,936
김병호	1,365,451	취업지원팀	김명숙	1,020,000	장금숙	1,041,890
김성근	1,500,000	경영대학원	김종애	1,048,360	장미숙	1,049,543
김태규	1,200,000	법인사무처	박세훈	1,033,923	장미숙	1,129,965
김희규	1,324,460	전자계산원	박종진	1,017,367	장미숙	1,032,500
류종욱	1,307,080	법인사무처	박희동	1,005,943	정병경	1,000,000
박승중	1,500,000	기획예산팀	최일우	1,017,367	정목자	1,050,963
박현상	1,159,190	인사관리팀	박광호	1,184,881	조미경	510,000
박환오	1,559,500	재무회계팀	박근서	1,183,437	조성배	1,040,990
변민우	1,163,190	인사관리팀	김태식	1,039,795	주성재	1,402,367
신관호	2,071,590	홍보팀	장은희	1,054,101	최국진	1,140,495
심선영	1,220,000	보건소	강지연	1,053,743	최봉주	1,000,000
안준옥	2,010,000	가상대학	권지연	1,049,001	최정숙	1,140,565
이강현	2,000,000	기획사업팀	김경희	1,064,205	최철환	1,500,000
이광우	1,500,000	창업지원단	김계현	1,193,805	하미애	1,061,499
이상만	1,711,004	전자계산원	김대욱	1,033,273	환경단	1,057,599
이성진	1,675,005	대학원 교학과	김미경	1,057,590	합영관	1,049,001
이영숙	1,651,255	재무회계팀	김옥련	1,040,463	합영실	1,130,605
이종식	2,200,000	교무처	김종성	1,159,405	황의돈	1,120,018
조성문	1,825,734	시설관리팀	김종민	1,054,343	이동은	999,543
허광도	1,624,965	국제정보대학원	김진광	1,027,960	김옥자	1,027,165
황우열	2,500,000	발전기금팀	김철석	1,500,000	서정옥	1,019,573
김용석	1,000,000	기획인사처 심사팀	나병욱	1,000,000	이권화	1,044,900
백승규	1,000,000	대학원 교학부	노정석	1,094,215	임조경	1,018,885
원충희	1,000,000	국제교류담당관실	박노경	1,049,543	장 운	1,006,156
정정희	1,009,592	전자계산원	박민규	1,075,901	주현식	763,741
유정호	1,043,640	전자계산원	박순희	1,078,245	최옥향	1,018,885
김선경	1,082,680	법인사무처	박원규	1,201,205	이현중	1,027,405
박현식	1,000,000	법인사무처	박인환	1,044,963	김승호	1,057,335
유병길	1,088,240	전자계산원	박정순	1,068,141	김종호	824,941
이연주	1,020,000	학사지원실	박진수	500,000	윤주영	1,178,393
이형택	1,156,420	법인사무처	박현숙	1,069,573	김운수	600,000
오정택	1,033,544	전자계산원	신하균	1,175,290	이경식	611,749
정인성	1,049,190	전자계산원	안미숙	1,050,463	박동수	1,760,965
정경훈	1,450,519	홍보팀	안상호	1,000,000	변재덕	1,158,665
					권우성	1,032,680
					류종훈	3,203,149
					김영수	1,008,145
					김종규	2,124,310
					이철우	2,000,000
					총무팀	
					학생복지실	
					기획예산팀	
					학술정보관리팀	
					대의협력처	
					사회교육원 교학과	
					취업과	
					언어연구교육원	
					행정대학원 교학부	
					문과대학 교학과	
					학술정보관리팀	
					동대신문사	
					학생과	
					정각원	
					정보시스템관리팀	
					출판부	
					기획예산팀	
					학술정보관리팀	
					학생복지실	
					역경원 편집부	
					정보산업대학 교학과	
					재무회계팀	
					대학원 교학부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연구지원팀	
					학술정보서비스팀	
					정보시스템관리팀	
					사회과학대학 교학과	
					학사지원실	
					공과대학교학과	
					연문정보대학원	
					학사지원실	
					정보시스템관리팀	
					구매팀	
					인사관리팀	
					구매팀	
					학술정보관리팀	
					구매팀	
					학생선발실	
					비서실	
					시설관리팀	
					대의협력팀	
					인사관리팀	

매체비평

-연극 편

‘기호 0 번 대한민국 김철식’

“민중과 함께 하되, 홀로 일어서라”



방은미 연출 / 박철민 주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말, 과연, 진실로 다짐합니까?

나에게? 난세에는 강용, 치세에는 영웅이 될 인물이라고 불리웠던 삼국지의 그 조조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조조는 시대를 잘못만나 오늘날까지 간사하고 기회주의적 인물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도대체 가담하나 합니까? 자기가 가진 재주를 오로지 제 한몸 잘살기 위해 써먹었다는 것

이게 바로 패러디다!

전경과 후경의 텍스트 ... 상호간 대응과 일치의 이미지를 끌어낸다

야 거 딴디 췌 때 나 반?

몇 해 사이 갑자기 유행말이 된 패러디의 말뿌리는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말의 대응노래(Counter Song)를 뜻하는 parodia가 그 어원인 것이다. 접두사 para는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대응하는(Counter)' 또는 '상반하는(against)'이란 뜻이다. 여기에서 패러디는 텍스트 간의 대응이나 대조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곧 조롱하거나 우습게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대조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조는 밀 텍스트에 보다 비슷하게 모방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될 것이다. 또 어원의 접두사 para는 '이밖에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는 두 텍스트간의 일치 내지 근사함을 뜻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패러디 사이트

우리가 즐겨 향유하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는 다양한 사이트가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며 펼쳐지고 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패러디 사이트이다. 클릭 몇번으로 세상에서 들려주는 정제된 이야기가 아닌 아마추어리즘적 이야기와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참신한 발상과 신선한 소리가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패러디 사이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만지일보(http://ddanji.net.go.com)'처럼 연문을 꼬집고 씹어서 풍자하기도 하고, '구라대학교(http://kura.com.ne.kr)'처럼 제도권 교육에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 동안 기존 매체가 사람들과의 생방향 의견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식이었던 것에 반해 이러한 사이트들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도 하고 박장대소하게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패러디 사이트들은 '표판게리온(http://www.geocities.com)'이나 '심마님(http://myhome.shinbino.com/~simanim)'처럼 그 사이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패러디 사이트들은 기존의 매체에 대항하는 또다른 언론훈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존의 영화나 만화, 가요 등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서 자기만의 고유 개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패러디 영화

오늘날 유행처럼 쏟아지고 있는 패러디의 범람은 모든 것이 '뒤범벅과 짝퐁'인 시대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문화양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패러디 영화는 기존 영화의 특정 부분을 모방·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코미디 장르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적 활동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쓰레기 예술(Trash Art)'로 불리기도 했지만 기존 영화 장면들을 자유자재로 비트는 기발한 발상은 장르의 관습에 얽매인 영화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충분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패러디 영화 역사는 90년대 초 '못말리는 비행사·람보' 등 할리우드 코믹 패러디 영화가 상륙하면서부터 본격화 됐으며, 사방이 패러디

전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좀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진 패러디 영화가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비드 수커 감독의 '총알탄 사나이'의 속편은 '사랑과 영혼'의 도자기 빛 장면을 코믹하게 예로되하게 패러디한데 이어 호러 영화 '스크림'에서는 진부한 관습들을 희극적으로 변모시키며 극중인물 렌다가 다른 주인공들에게 호러 영화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등 엉뚱한 줄거리가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패러디 영화가 고전 영화의 명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모방하기 때문에 명장면에 대한 감동을 격하시키고 영화적인 환상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바람직한 패러디 영화는 '순수한 복제'가 아닌 '새로운 주류문화'를 향한 창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패러디 광고

패러디는 언제나 풍자나 표절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여 있지만, 광고에서 패러디의 효과는 친근감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효과와 자극을 가져 준다. 어디선가 한 번 봤음직한 화면에 허를 찌르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보는 이들의 눈과 귀는 번쩍 뜨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투데이의 한 CF 속에서 여자 탤런트를 외계인으로 설정해 그 자체를 쇼킹하게 만

들고 있음과 동시에 할리우드 영화에 못지 않은 컴퓨터 그래픽 기법의 활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특히 얼굴 피부를 벗기자 악살스러운 표정의 외계인으로 돌변하는 모습은 아놀드 슈왈츠제거 주연의 '토탈 리콜'을, 입에서 긴 혀바닥이 나와 파리를 낚아채는 모습은 영화 '뎀 인 블랙'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처럼 광고는 패러디를 가장 단골로 사용하는 장르로서 최근 들어 TV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들도 부쩍 눈에 띄고 있다. 패러디는 건강하고 억압된 것을 해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패러디 광고는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뇌리에 확실한 자극을 심어 준다. 이제 인기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주요장면에 독특한 소스를 가미시킨 패러디 광고는 색다른 친근함과 돌출성을 아울러 살리며 시청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게 될 것이다.

홍신선 교수 문과대 문예창작과

메아리

국민을 팔지 마라

▲'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순수한 청년의 사랑고백일까? 지난 주, 하얀 바탕위에 '선영아 사랑해'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서울 시내 전역에 붙었다. 각 대학에는 물론 달리는 버스와 지하철에도 붙었으며,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도로변에도 달려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을까?" 포스터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동으로 순진한 상상에 빠져있을 때 한 주 동안 호기심을 자극했던 이 포스터의 진실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전략으로 밝혀졌다. ▲'선영아, 사랑을 팔지마라 - 대신 너를 만나지 않겠다.' 지난달 31일 '선영아 사랑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동일한 색상과 동일한 모양의 글씨체로 다른 현수막이 걸렸다. '사랑'을 값싸게 파는 것에 대해 한 시민이 반발한 것이다. "홍대앞 플래카드에서 보았던 선영아. 제발 사랑을 그렇게 값싸게 팔지 마라. 네가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런 광고전략을 성공시켰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을 우롱하면서 탄생한 너의 사이트를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홍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평소에는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던 정치인들이 온 시내와 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한 표'를 구걸한다. 국민에 대한 넘치는 '애정'에서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공천될 자격이 없다"는 시민들의 판단도 안하무인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상대 정당을 비방할 때도, 며칠 밤을

지새우며 한숨이 짝이 없는 공방전을 벌일 때에도 말머리마다 '국민'을 운운한다. "공천부적격·낙선자 명단에 오른 후보님들, 국민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가뜩이나 지 알 길은 없으나, 더 이상 '국민'을 값싸게 팔지 마십시오. - 나는 당신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결코 행사하지 않을 것이니." 김진아 편집장

경주캠 음악동아리 소리창고에서는 10주년 기념공연을 갖는다. 91년 창단 이후 꾸준히 한 길을 걸으며 열심히 노력해온 그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진실에 관하여', '절망 앞에서', '하나 되어' 등 다채로운 곡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동아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듯. 오는 8일 오후 5시, 서리별문화회관에서. 경주캠 미술학부 전시회에서는 '제15회 모색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8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무속'이라는 작품 속에 내포된 사머니즘의 의미에 주목하고 감상해 보면 좋을 듯. 더구나 포항제철 내에 전시되어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오는 5일까지, POSCO 2층 전시실에서. 학교 밖에서 태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독특하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연극 양식을 보여준다. 단장을 폐위하고 권좌에 오른 세조를 중심으로 궁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사육신의 망명으로 괴로워하는 세조와 그를 보좌하는 생육신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그린 작품. 37년간 연극을 향한 의지를 절어오르게 연출. 평일 7시 30분 토요일 4시, 7시 30분 공휴일·일요일 4시. 오는 9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문의 2274-3507~8.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독자와 문학작가가 함께 문학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색적인 만남이 있다. 공연 및 전시예술 중심인 대학로에서 문학관련 문화행사를 만났으므로 다양하고 폭넓은 장르의 체험과 이해를 넓힌다. 고은, 오대석, 오재석, 이문구 등 우리 문단의 으뜸가는 작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작가의 대표작 낭송·독자와의 대화시간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12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7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무료. 문의 760-4561

짜인스식

학교 안에서

소리창고 10주년 공연



경주캠 음악동아리 소리창고에서는 10주년 기념공연을 갖는다. 91년 창단 이후 꾸준히 한 길을 걸으며 열심히 노력해온 그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진실에 관하여', '절망 앞에서', '하나 되어' 등 다채로운 곡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동아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듯. 오는 8일 오후 5시, 서리별문화회관에서.

경주캠 미술학부 전시회



경주캠 미술학부에서는 '제15회 모색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8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무속'이라는 작품 속에 내포된 사머니즘의 의미에 주목하고 감상해 보면 좋을 듯. 더구나 포항제철 내에 전시되어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오는 5일까지, POSCO 2층 전시실에서.

학교 밖에서

태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독특하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연극 양식을 보여준다. 단장을 폐위하고 권좌에 오른 세조를 중심으로 궁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사육신의 망명으로 괴로워하는 세조와 그를 보좌하는 생육신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그린 작품. 37년간 연극을 향한 의지를 절어오르게 연출. 평일 7시 30분 토요일 4시, 7시 30분 공휴일·일요일 4시. 오는 9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문의 2274-3507~8.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독자와 문학작가가 함께 문학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색적인 만남이 있다. 공연 및 전시예술 중심인 대학로에서 문학관련 문화행사를 만났으므로 다양하고 폭넓은 장르의 체험과 이해를 넓힌다. 고은, 오대석, 오재석, 이문구 등 우리 문단의 으뜸가는 작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작가의 대표작 낭송·독자와의 대화시간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12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7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무료. 문의 760-4561

소나기

M.T.와 C.C.의 상관관계

△C.C.가 되면 둘만의 M.T.(=밀월 여행)가 시작된다.
 △왜 M.T.를 가면 C.C.가 탄생할까?
 △첫 M.T.가서 토하면 C.C.될 확률이 높아진다.(모성 본능 자극)
 △M.T.를 쓴다면 캠퍼스에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느끼해서 학교 못 다니겠다.
 △M.T. → C.C.(M.T.는 C.C.의 충분 조건이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 진다. 흑흑흑...
 △상관없어야 한다.(무 C.C. 일동)
 △f(M.T.) = C.C.(수학과 멍청이)
 △이번 M.T.에서 제발 관계 있기를...
 △M.T.와 C.C.와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n(M·T)=nCw/nCm×100
 (Cm=man, Cw=woman)
 △이번 M.T.때 내가 보여주마!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된다.(M.T.의 상대성이론)
 △신입 여학생이여 M.T.가서 선배가 주는 드링크케 맥지 마라!
 △M.T. 수 × C.C. 발생수
 △M.T. 동거일수 × C.C. 탄생율
 △M.T.가서 C.C.된 애들 잘 된 꼴 못 봤다.
 △M.T. 주최자 = 미팅 주선자?
 △돈 없어서 M.T. 못가는 사람 서러워
 샅샅이 M.T. 안가도 능력있는 녀들은 다 생겨
 △M.T. 가 시러요! C.C. 는 더 시러요! 왜? 인강이 추해지니까~!
 △M.T.갔다 돌아오면 뽀뽀뽀~?
 △우리모두 M.T. 가서 솔로 생활 탈출하자~
 △M.T. 안가봐서 C.C.가 왜 생기는지 모르게쥬쥬T
 △나! M.T.간다. 나! C.C. 될 수 있을까?
 △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M.T. 갈까!
 나는 이미 C.C.다!
 나는 양 다리다!
 △오늘 운명의 그녀를 만났어~ 여기가 어디냐면 말야 동대 연합 M.T.야!!
 △아그들이 M.T.가서는 아무쪼록 몸 사리라
 △M.T.의 첫날밤에~ ~ ~ 몰라임~
 △난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다.

4·13총선 ... 유린되고 있는 노동자 생존권

총선이 2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각 선거운동 진영은 평소 관심밖이었던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난리 법석들이다.
 광상시엔 찾지도 않던 곳을 찾아다니기에 바쁘다. 정당들은 연일 의회 자리를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기에 자신들의 힘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되짚어보자. 여전히 정리하고 위협에 시달리는 아버지, 체불임금까지 반납하고 점심시간도 줄여가며 일하는 어머니, 실업률과는 반대로 치솟기만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어대지만 누가 위기를 극복했는지 알 수 없다. 가진 자들의 위기극복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등골만 휘어지고 있을 뿐이다.
 어느 날이 의식을 많이 차지하고, 어느 사람을 당선시켜야 할 지가 우리 삶의 위기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모 후보는 부정부패와 병역비리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을까? 아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

은 똑같이 우리네 삶과는 관련 없는 가진 자들만의 잔치를 벌일 것이다. 4·13, 16대 총선에는 우리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달콤한 선거용 눈가림과 조공이라도 자리를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만을 심어줄 뿐이다. 총선연대의 나선운동 역시 이러한 의미들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물론 나선운동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일정정도 선거에 집중되고 있고, 부정부패 인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등의 긍정성은 인정되나 특정 후보에 대한 나선운동만으로 우리 삶의 위기가 극복될 것인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뿐이다.
 지금의 '바뀌' 열풍이 단순히 후보자의 자질 문제 혹은 지금의 보수정치권에만 국한될 문제인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 것이다.
 한세영 (공과대 전기공 4)

염색한 그대여...

3월 오전 9시 30분. 해화관 강의실. 졸렸다. 수업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고의적으로 강의실 맨 뒤에 앉았고 덕분에 난 실컷 경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앞에 앉은 모든 학생들의 머릿통을 감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잠이 썩~ 달아났다. 50여명이 꽉찬 강의실에 아무리 살펴봐도 염색이나 브릿지를 하지 않은 학생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교수님도 멍멍이서서 열게 염색을 하고 계셨다. 물론 강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많은 수업이고, 또한 좀 더 이뻐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으나 새삼스레 알게된 '머리 문화'에 놀란 것도 사실이다.
 '화장, 염색, 성형수술...그 밖의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수 많은 분장술들.'
 그리고 '깊은 사색, 지극한 마음씀씀이, 운동, 참선 같은 것들'. 이 두 부류들 사이에는 큰 공통점과 큰 차이점이 있다.
 전자들이나 후자들이나 우리 인간의 모습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전자는 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무척 짧은 반면 후자들은 변화에 비교적 긴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요즘 입구정동엔 가보면 모두가 뽀뽀뽀다. 마음만 먹으면 성형하고, 염색하고, 화장하고, 이것 저것 붙이고, 하이힐 신어서 키높이고, 또 무엇들인가를 해서 순식간에 고소영이 되고 정우성이 된다. 그러나 멋지게 주름진 미소를 가진 안성기에선 지난 수십년간의 그의 마음씀씀이가 느껴진다. 또 도올의 미간의 깊은 주름에선 그가 사색과 고

뇌에 바친 소중했던 젊은 나날들이 느껴진다. 500x백주잔을 들며 열핏 비치는 승인의 이두박근은 중2때부터 헬스장에서 흘린 한방울, 한방울의 땀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난 도무지 이정현에게, 송은이에게 점수를 줄 수가, 감동을 할 수가 없다. 평소의 몸매 빼어난 '슴'에서 나온 아름다움과 순식간에 만들어진 예쁜 바비인형과는 아무리 비교하려해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내 앞에 앉은 귀엽게 브릿지한 여학생보다는 늘 기도하고 늘 삼가하는 비쿠니스님에게 더욱 반할 수 밖에 없나보다. 3고인 여동생은 늘 불뚱거린다. 자기반에는 예쁜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부럽고 자신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을 하면서 짜증을 마루리 짓는다.
 "누가 아무리 뭐라해도 나를 예쁘게 더 좋아하잖아. 예쁘게 편한거야. 예쁘게..."
 이 사회가 어찌나, 문화가 어찌나 할 것도 없이 솔직한 내 마음에 물을 때, 언제 나 느끼지만 참 어려운 화두다.
 김우준(사과대 사회과학부09) kimw21@hanmail.net

변치않는 도서관 미덕

8년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서관을 '대학의 심장'이라 일컬었던 어느



“모여라...” 움직이는 대자보 본적 있나? 동문회 모임장소를 갑자기 바뀌 어리둥절해 할 후배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정겹다. 촬영=송광수 동문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 후 8년간 학교의 모습은 정말 빠르게 변해왔다. 테니스장이 하나 없어질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들어섰고, 식당의 빈 그릇들은 스스로(?) 움직이게 되었다. 옛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성형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겹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의 모습은 정말 대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가 갈수록 넓어지고, 여름엔 빗물 소리가 철지붕을 울리고, 비는 좀 새어 들어 오지만 걸어가면 학생의 발음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신입생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주는 상큼함이 있다.
 기쁘다! '심장'은 쉽게 이식하거나 성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올 여름도 제3 열람실의 빗물 떨어지는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총장님은 이곳을 가끔 들리시지만 용케도 맑은 날 오셔서 아쉽게 그 소리를 못 들으신다. 꼭 알려드려야 할텐데...'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른 학교의 도서관도 이처럼 정겨운지 궁금해지는 건 왜일까?
 오늘도 스템은 때늦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우리들은 어색하게 창문을 연다.
 이성훈(법과대 법학과 4)

경주캠 총학후보자 정당성 논란

작년 총학 선거의 무산으로 3월 다시 총학 선거가 있었다. 처음엔 두 후보가 출마한다고 하던데 막상 보니 한 후보뿐이었다. 이유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이번 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선거시행세칙이 있어 두 후보자 중 하나가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등·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 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중선위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단체 회장들은 대부분 중선위를 사퇴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반수인 총대에서 꾸린 중선위 위원들에 의해 이의는 기각되고 말았다.
 윤방골의 학우들이 알고 있듯 후보가 유세를 할 당시는 중앙부서 접거 등·협이 함참 전개되고 있었다. 시간적으로 총학생회가 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는 맞지만 이걸 좀 이상했다. 올해 총학은 등록금 협의 안 하러는? 선거공약에도 그런 문구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방중

의 등·협 상황은 총학생회가 서지 못해 그 힘을 한데 모으기 어려웠고 일의 진척도 쉽지가 않았다. 등·협은 총학이 있었다면 학기초에 가장 총력을 기울였을 중요한 일이다.
 총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방중에 있었던 대학교 등록금 협의에 총대에서는 한번도 참가하지 않다가 이 시점에서 등록금 안 냈다고 후보 등록까지 안 된단다. 선거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다.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작년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가 다시 등록을 한 것 역시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총대에서 결국 인정해서 올해에 재 출마했다. 원칙, 원칙 하는데 뭐가 제대로 된 원칙인가? 총학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전체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학우 전체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총학 만큼이나 중요한 총대에서 등·협과 관련해 보여준 모습은 좀 실망스럽다. 정말 학우들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길 바란다.
 서진우(한외과대 본2)

TEL : 22603491 · 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알림
 이번호부터 만화 필자가 삼철공에서 신동우(관경4 휴학)로 바뀔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약광장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육개장(1500)
화	개맛살관동(1500)
수	사골우거지탕(1300)
목	오징어채볶음(1500)
금	햄찌개(1300)
	닭갈비(1500)
	소고기명면발(1300)
	생선가스(1300)
	살림탕(1300)
	모듬소스볶음밥(1500)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부대찌개(1300) 궁지통조림찌개(3300)
화	양념통닭(1500) 돈나갈비구이(3500)
수	갈비탕(1500) 살림탕(3300)
목	미트소스볶음밥(1300) 철관볶음밥(3300)
금	사골우거지탕(1300) 조기매운탕(3300)
	오징어탕수(1500) 불나물비빔밥(3300)
	소고기버섯찌개(1500) 콩나물국밥(3300)
	제육볶음(1500) 삼육정식(3000)
	만두국백반(1300) 튀김우동(3300)
	치킨가스(1500) 버섯불고기덮밥(3500)

목격글

축하합니다
 △건국공화국 98 근화생일을 축하합니다. 꼭 한달 늦은 98 정민이 생일도 역시 축하! RT 화이팅! -98 천구가
 △국문 4학년 승원 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정확히 한달 뒤에 생일 맞이 할 후배가 △재환형이 결혼정보업(solointo.co.kr)을 창업하셨음당. 민중사랑 후배들이 추카드립당.
 △공대 학생회장님! 당신을 축하드립니다. 등록금 투쟁 잘 했으면... -하
 △은선아 생일(4.6)을 정말로 추카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pisk20
수고하셨습니다
 △제 32대 역사교육과 학생회 건설! 딱수 오빠, 잠미 언니 힘내세요! -위의 역교 99

△천년지기(동국사랑 실천단) 모두 모두 넘 고생했습니다. 꼭 학원자주 정취합시다.
 -총 집

열심히 합니다

△역사교육과 32대 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 정·부 후보자님 중심으로 멋지게 힘있게 합시다.
 -예진이가

알립니다

△4월 7일 사법대 출범식! -엘레 사장
그리고...

△정은아, 미선아 고마워. 아플 때 같이 있어줘서. -역교 99
 △인하·박문 동문회 화이팅! -양치기소년
 △기철아 잘 갔다오게. 군대 가서 밥 잘 먹고 -정선대 학우
 △충현아! 군대 잘 갔다와~ -~~Waiting for you : 486JH
 △회계학과 야구 우수 기원! -회계 98

온방글

축하합니다

△간호학과 3학년 은하야 생일축하해.
 -97DH

△심! 생일 정말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기록선배! 생신 축하드려요! 또 사랑해요!
 -DELL 9th

수고하셨습니다

△법(야) 학회장님 신입생 환영회 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부들도 수고.
 -97DH

△원효관 점거농성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등·투 기록일동
 △지은아! 콘서트 한다고 수고 많이했다. 힘들었지? 사랑해 Fighting
 -99 얼어붙은 동기
 △극사학과 짱 영호오빠 정말 수고 많으

세요. 오빠머리 자랄때 쯤이면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겠죠?! -98 울산 스머프

열심히 합니다

△한울회 16기 동기들이 진짜 열심히 하자. 맛있는 MT계획도 짜고. -은주
 △YOU-LOSS 8기들이 이제 주기수 하나 까 힘들지? 하지만 열심히 하면 될거야. 9기들도 잘 이끌고, 열심히 해~ 싸랑해!
 -7th 처기 ^^

알립니다

△학원 전임 감사 구함.(여자) 초·중등부 과학 시간 오후 2시~9시 문의전화 773-3283~4(오후2시~6시사이)

그리고...

△빼지거나 하는 불대회장.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탄핵 할 것입니다. -불대 94
 △이정자님. 당신의 배려에 감사하는 4월입니다
 -쫘터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아육국(1300) 구제비국(1300)
화	돈가스(1500) 쇠고기덮밥(1700)
수	짬뽕국(1300) 냉이된장국(1300)
목	햄치볶음밥(1600) 전주비빔밥(1800)
금	소고기무국(1300)
토	김치볶음밥(1600)
일	동태매운탕(1300) 근대국(1300)
	생선가스(1300) 오징어덮밥(1600)
	감자양파국(1300) 쇠고기두부찌개(1300)
	쇠고기볶음밥(1700) 카리라이스(1500)
	우거지국(1300)
	잡채덮밥(1800)
	된장찌개(1300)
	제육볶음밥(1600)